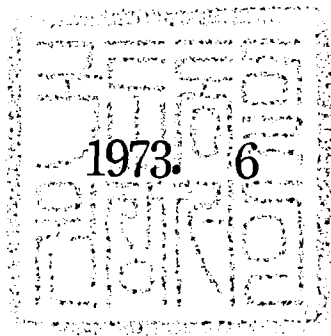


西獨의對東獨弘報政策



中央日報 東西問題研究所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입니다.

1973.6.

연구기관 중앙일보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황 성 모

연구원 김 동 훈

目 次

| | |
|----------------------|----|
| 一. 对東独 弘報方向 (政策基調) | 3 |
| 二. 西独의 言論体制와 对東独論調 | 17 |
| 1. 言論体制 및 그 特徵 | 20 |
| 2. 对東独論調 | 26 |
| 3. 言論自律規制問題 | 30 |
| 4. 放送体制와 对東独論調 | 32 |
| 三. 对東独公報政策의 變遷 | 39 |
| 1. 키-정거-時代 | 41 |
| 2. 브란트政權時代 | 45 |
| 四. 東独의 反應 | 51 |
| 1. 「엘플트」會談 | 53 |
| 2. 「캣셀」會談 | 60 |
| 3. 現 在 | 64 |
| 4. 參考資料 | 73 |
| 五. 評價 및 우리의 对策 | 79 |
| 六. 參考資料 | 89 |

一. 对東独 弘報方向 (政策基調)

一. 对東独 弘報方向 (政策基調)

「칼·야스퍼-스」가 1966년 그의 문체작인 「독일의 장래」(1)라는 책에서 「우리들은 「할슈타인·독트린」을 斷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대신 우리들이 東獨을 승인하든 안하든간에 (어쨌든 所屬의 壓力下에 있는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衛星諸國과의 經濟的, 文化的結合을 強化하고 友好關係를 發展시킬 必要는 있는 것이다. 할슈타인·독트린은 우리들이 우리들 스스로를 구속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現實的으로는 결국 아무런 變化도 이르지 않고,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現實의 變化를 방해하는 抽象的이며 法偏重의 思考方式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야스퍼-스」가 철학자로서 독일의 장래를 관망하는 思考方式을 表現한 것이 있지만 그의 思考方式은 분명히 冷戰體制에서 가꾸어진 二分法的 思考方式에 키다란 軀機를 준 것이었다. 그러나 政治的次元에서 表現되었던 것은 1969년 「브란트」의 西獨社會民主黨(SPD)이 政治一線에 登場함으로써 그 氣運이 高調되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東獨에 對한 브란트政權의 言論 및 弘報政策도 基本的으로 이러한 政治的變化를 반영한다는 것은 尠說할 必要도 없다. 言論이나 弘報는 政策의 傳達手段이고 보면 政策을 論하지 않고 弘報를 論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브란트 및 社民黨의 「東方政策」의 本質과 그政策의 變遷過程을 高찰해 보는것이 基本的인 研究方法으로 생각된다.

基民, 社民黨聯政時代가 끝나고 1969年 10月에 社民·自民聯政의

樹立으로 西獨에서 처음으로 中道左派政權이라 할수있는 브란트政權이 樹立된 後 브란트는 同年 10月 28日 議會에서 施政方針을 밝히며 아데나우어 以來의 西獨政府의 對東方政策에 커다란 變化를 淸명한바 있었다. 그 요지는 (1) 東獨政權과의 協商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따라서 國際法上으로 承認하는 것은 아니로되 두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서로가 外國關係가 아닌 特殊한 關係속에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2) 武力不行使宣言의 交換을 包含한 對소交涉 (3) 포렌드와의 關係正常化 交渉으로 要約할수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브란트의 東方政策의 骨子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후로 一連의 積極的인 東方政策의 實現段階에 들어 가는 것이었다. 同年 11月 28日에는 核拡散防止條約에 調印함으로써 소聯側의 疑惑을 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12月 3~4日에 걸쳐서 모스크바에서는 소聯 및 東獨諸國의 首腦會議이 열려 獨逸問題를 中心으로 하는 情勢分析이 있었던 것이다. 이 會議의 공동 コミュニ케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核防條約調印을 肯定的 要素로서 認定한다」고 하는것을 보더라도 소聯 및 東獨諸國이 西獨의 政策動向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알수 있다.

이로부터 西獨政府와 소聯 및 東歐諸國 사이에는 一連의 交渉이 시작되었고 그때는 時期的으로 仏蘭西가 「드골以後」의 國內經濟再建에 没頭하고 있었고 英國은 總選과 「EEC」加入問題로 餘念이 없었던 때였던 만큼 東歐諸國과의 外交面에서는 西獨이 有利한 立場에 서게된 것이다. 歐州에서의 獨逸의 存在는 언제나 潛在的이든 顯在的이든 간에 NATO, 瓦소條約機構의 最前線이라는 뜻에서冷

戰時代의 問題의 焦點이 되어온것이 事實이다. 그중에서도 獨逸問題의 本質은 東獨의 地位와 獨逸再統一을 위한 東西의 차立으로 집약할수 있다. 西獨은 東獨을 不承認하고 兩獨을 單獨으로 代表하며 自由選舉에서 獨逸의 再統一을 達成하겠다는 政策이 繼續 維持되어 온데에 反해서 소聯을 中心으로 한 東歐諸國은 歐州分割의 現狀態의 테두리 안에서 獨逸의 兩分狀態를 既定化, 恆久化하고 그것으로서 歐州勢力均衡의 基礎로 삼겠다는 主張을 一貫해서 해온데 歐州에서의 東西對立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上記 브란트首相의 對議會施政 演說로 큰 轉換을 가져온것이지마는 여기서 특히 對東獨政策에 대한 客觀情勢를 一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要求되는 것이다.

「오델·나이세」國境線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西獨側이 大幅讓步하고 承認의 길로 갈것이라는 點은 쉽게 내다보이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對포란드問題는 解決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對東獨問題는 解決된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言及한것 처럼 東獨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은 거부하면서 「外國」이 아닌 두개의 獨逸國家의 存在를 認定한다는 「特殊한 種類」의 共存을 달하게 되는 단계에 까지 進진한것은 事實이다. 「아테나우어」·「엘할트」兩政權을 通해서 東獨을 단순히 「소聯占領地域」(Zone) 또는 「中部獨逸」(Mitteldeutschland)로서만 불려왔고 「키-징거」時代에도 「獨逸의 다른 部分」(Andrer Teil Deutschlands)라고 부름으로서 東獨의 政權的存在를 부인해 왔던것이다. 그러므로 「두개의 國家」로서 東獨의 國家的存在를 인식한다는 것은 커

다란 轉換이라고 할수있다. 上記 모스크바共同코뮤니케에서도 이 「두개의 國家」方式이 커다란 前進이라는 見解를 밝히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事態 進展에 대해서 가장 反발적인 反應을 보인것은 다름아닌 東獨自身이라는 事實은 問題의 本質面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볼수있다. 1969年12月13日 東獨社會統一黨 (SED) 第一書記 「울브리히트」가 第十二次 黨中央委에서 「外國이 아닌 國家關係라는 見解는 國際法上으로도 實際적으로도 아무런 뜻이 없는일」이라고 非難하면서 兩國의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東獨의 法的承認이 「最低限의 條件」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事實上の 承認과 法的承認사이에는 差異가 크다면 볼수 있으나 事實上の 承認이 既成事實化하면 東獨으로서는 永久히 法的承認을 얻을 機會를 상실하는 可能性이 생긴다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소聯으로서도 歐州分割의 現狀固定化를 내세우고 있는 立場이어서 그것을 法的으로 確定한다는것이 事實上の 인정보다는 낫다고 생각할것은 分명한 일이다. 울브리히트는 동년 12月17日에 西獨大統領 하이네만에 대한 서한에서도 「獨逸民主共和國 (DDR) 과 獨逸聯邦共和國 (BRD) 間의 同等한 權利에 立脚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을 締結할 것을 提議하였던 것이다. 비슷한 內容의 提議이 이미 울브리히트의 1966年12月31日의 十個案計劃에서도 밝혀진 일이 있고 1967年9月18日의 슈토프의 條約草案에서도 밝혀진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 주창된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일은 獨逸聯邦共和國의 憲法上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熟知하고서도 그러한 提議을 하는 것은 그 提議을 거부할수밖에 없는 獨逸聯邦共和國側이 平和

와 安全을 願하지 안는다는 非難을 받게하기 위한 것임은 分明하다. 그것을 뒷바침 하는것으로 DDR의 黨報 閣紙「세독일」(Nlew Deutschland) 1969年12月23日자 社說에서 「平和를 保障하는 條約의 規定이라는 것은 많은 兩獨의 政治家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결코 最大의 要求는 아닌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正常的이며 平和的이고 同等權이 保障되는 關係를 위해서는 最少限의 必要不可欠한 要求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같은 一種의 混亂期를 지니고 브란트首相에 의해서 議會에 提出된 1970年1月14日의 「國民現況에 대한 報告」에서 브란트 政府의 政策基調를 한번더 밝히게 된것이다. 여기서 그것을 引用해 보기로 한다. (3)

「독일政策은 어떠한 方向을 設定해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한 첫째의 回答은 현재 自由스러운 秩序속에 있는 獨逸의 여러 地方들을 自由롭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의 回答은 우리 모두가 모든 問題를 平和속에서 해결할것을 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번째의 回答은 우리들은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함으로서 人權이 더많히 保障되고 實現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基本方向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論理的으로 아래와 같은 問題가 提起된다. 卽 어떠한 方法으로 獨逸政策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할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그것은 國民國家가 傳統的으로 使用해온 그러한 方法으로서는 達成될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은 다만 他者와의 聯盟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本人은 원래부터, 未來에 있어서는 現實的인 政治的

解決은 聯盟形態나 安全保障體制나 또는 共同體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國民國家들이 과거에 한바와 같은 그러한 方法으로서는 獨逸問題를 現實적으로 취급할수가 없게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歐州의 平和秩序를 위한 努力이 必要할 뿐이다. 그때 重要한 일은 事實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現實主義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現存하는 不義를 주저하면서도 받아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시간을 두고서 歐州內의 여러 國境線에서 그것이 가지는 分離的인 性格을 없이 하는데 우리들이 確實하게 貢獻한다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東獨과외 關係改善을 위해서「우리들은」 經濟分野, 科學分野, 交通-체신-文化-스포츠-情報交換分野에서 雙方이 다 承認할수 있는 規定을 마련할수 있는 모든 合意에 到達하는데 대한 용의가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은 兩國間의 關係를 第三國과의 그것에 비추어서 가질수 있는 補充의 必要性을 充足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補充의 必要性은 말하자면 두 개의 國家秩序가 하나의 國民으로 歸屬될수 있는가 하는 特別히 密接한 關係에 到達하기 以前에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것이다.

우리들은 東伯林의 政權에 있어서 政治的 同等權과 또 어느 抽象的인 形式이 重要하다는 것을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聯邦政府가 갈라져 있는 저독일 땅에서 人間の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 同時에 發生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수많은 말을 스스로 할수있게 될것이라는 點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할것이다.

國家繁榮이란 그것이 곧 市民의 安寧이 되지못한다면 그렇게 價

值있는 것이 아닌것이다」라고도 하고 있다.

이점에 관해서는 外務長官「셸」(Scheel)의 1970年1月28日의 강연에서도 언급하기를 政治的, 法的領域에서의 聯邦政府의 양보는 政治的, 人本主義的領域에서의 東獨僑의 양보와 直結되는 것이며, 同時에 聯邦政府가 東獨政府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留保條件들은 특히 法的同等權의 不承認-東獨僑이 如何히 條約을 지킬수 있는가 하는 實證으로서 內統共同體의 構成에 얼마나 誠意가 있는가 하는 것과 關聯되는 立論을 강조하고, 東獨政府가 歐州人들의 要請을 考慮할 容의가 되어 있지않은 한 그들이 國際的으로 尊重되고 承認될수 있을것이라고는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道德的인 問題이다 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브란트의 자문역을 했으며 院內總務인 「웨-너-」(Herbert Wehner)도 슈피-겔誌와의 會見에서 將來에 있어서의 國際法的 承認의 可能性을 排除하지는 안했던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브란트政權의 新政策의 特色은 相對的이며 流動的인 면서도 時間의 흐름속에서의 變化에 크게 依存할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을 國家로서 認定한다는 것은 複雜한 問題를 내포하고 있는 國際法的 承認이라는 方向에 대해서는 하나의 進展이라고 보지않을수 없다.

同時에 그것은 兩獨間의 共通性을 유지하는 유일한 方法일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再統一과 國際的單一代表權을 要求하는 길은 事實상 過去에 끈질기게 繼續되어왔던 雙方의 立場을 斷念하는 것과 過去의 그 硬直性에 融通性을 가져온다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말할바도 없이 그것은 緊張을 緩和하고 雙方의 相互競争을 위해서
길을 터고 各己의 社会構造의 強점에 立脚해서 最終的인 決定을
내릴 수 있다는 希望을 가질수 있게 하는것이다. 브란트도 이점을
議會討論에서 여러번 分明히 한일이 있다. 自由獨逸(FDP)의 「다
렌돌프」議員(R. Dahrendorf)도 1970年2月25日의 獨逸問題에 대
한 議會討論에서 「두개의 獨逸國家間의 積極的인 競争을 試圖」할
것을 提議한일도 있었다. 브란트首相도 엘플트會議(Erfurter Tr-
effen)에서 「하나의 建設的인 競争狀態」에의 進入을 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勿論 過去의 그것에 比해서 冒險的이기는 하나
同時에 상당히 樂觀的인 것이라 할수 있다. 어쨌던간에 이러한
政策이 노리고 있는것은 이 政策을 통해서 東獨뿐만이 아니라 소
聯이나 포란드가 얼마만큼 條約的인 形式으로 協商에 應할 用意가
있는가 없는가를 試驗할수 있다는데 있다. 그것도 東歐障營이 大
戰을 願치않고 있으며 그들도 大戰이 발발하게 되면 그들이 建設하
었다고 자랑하는 社会主義自体가 無意味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잘알고 있기때문에 提議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東歐障營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權力에 奉요를 가져오지 않고 經濟, 技術, 科學및
文化展 交流를 願할것이라는 것은 明白한 일이된다. 그렇기 때문
에 聯邦政府는 東西獨雙方의 主張을 緩和시키는 協商을 통해서 우
선 政治的次元에서의 妥協의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現在까지는
그 反應은 相互가 肯定的으로 나왔다. 만약에 將來에 있어서도
繼續해서 肯定的인 사태가 進展된다면 聯邦政府의 政策과 行動은

東西獨間 뿐만아니라 東西兩陣營間的 將來의 關係決定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하게될 수도 있는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일에는 肯定的인 面만이 있을수는 없다. 例컨대 基民黨 (CDU) 의 「슈트라우스」 (Josef Strauss)나 「발첸」(Rainer Barzel)의 議會에서의 發言에는 소聯이나 東獨의 態度에는 조금도 變換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基民黨의 立場에서는 브란트首相의 主張은 1968年8月21日에 발표되었던 이른바 「브레즈네프·독트린」앞에서 단 순한 祈念事項에 不過하게 되는것이며 특히 東獨의 國家承認은 西獨國家理念인 自由主義的이며 法治國家의 基本立場을 포기하는 것이 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과격한 공격은 基民黨의 「프라이델·폰·그넬펠크」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1969年10月末日의 그의 議會에서의 演설은 브란트政策을 獨逸로 하여금 西方的 民主的·自由的世界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이라고 까지 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西獨側의 움직임에 대한 東獨側의 反應은 아래와 같이 要約될 수 있다. 1970年1月19日의 「울부리히트」의 記者會見에서 그는 「兩獨間의 友誼的 關係와 差別撤廢」에 立脚한 「國際法的 條約締結」을 促求하고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對한 基本的인 否定的態度는 表明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리고는 그는 그가 西獨大統領「하이네만」(Heinemann)에게 提案한 條約의 締結을 要求하였고 그것이 東獨으로서 「最少限의 要求」라고 하였다 (5). 그리고 브란트首相이 議會에 提出한 「國民實態報告」에서 提案한 東西間의 暴力斷念을 위한 協商問題에 대해서는 우선 西獨과 소聯

사이의 協商結果를 파악할 것이며 그問題는 社會主義諸國家의 共同
關心事項을 천명하였다. 브란트는 이問題를 1970年 1月 22日 東獨
首相 슈토프에게 公式으로 翰翰으로 提案한바가 있었던 것이다.

西獨의 소聯과의 經濟協力問題를 잠시 度外視한다고 하여도 西獨
으로서의 東西獨間問題解決을 위해서는 소聯 및 기타 東歐國家와의
「高位會談」의 必要를 等閑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의 側近
者이며 長官인 「발」(Bahr)을 모스크바에 보내서 1970年 1月 30
日부터 「그로미코」와 더불어 會議을 가진바 있었고 同年 2月 5日
에는 일소에서 「두크비츠」(Duckwitz) 外相과도 戰後 처음으로 브르
더운 분위기 속에서 政治問題를 論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西
獨 - 포란트간에 처음있는 政治會談이었다.

이와 보조를 같이해서 1970年 2月 27日에 西方側은 소聯에 대해
서 金伯林問題를 주제로 하는 四大大使級會談을 提案하였던 것이
다. 여기에 대해서 소聯은 西伯林問題에 관한 會談에만 應할수 있
다는 回答을 보내음으로써 東伯林的 地位에 관해서 현상유지를
願하고 있다는 事實을 通報한것이다.

그러나 「슈토프」는 이미 2月 11日에 브란트에 대해서 直接會談
할것을 提議하였고 그것이 3月 2日로 決定된바 있었지만은 東獨側
은 西伯林에서 東獨을 反對하는 데모가 있었다는 理由로 브란트가
會談場所로 往來途中 西伯林을 寄行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主
張하게 되어 일시 難關에 逢着하였지만은 3月 19日에 엘플트에서
會談을 갖는다는 決定을 보게되었다.

勿論 이會談은 兩獨首相이 會談하였다는 뜻은 있지만은 具體的인

成果는 없었다. 다만 共同코뮤니케에서 슈토프가 1970年5月21日 「샬」에서 會談할것을 同意했다는 事實만을 伝했음 뿐이다. 그러니까 會談이 擱開된다는 것뿐이었다.

이 會談에서 비록 브란트首相이 提議한 常設委員會設置件은 合意를 보지 못하였지만 이 會談역두에 슈토프가 發表한 聲明은 兩獨關係의 問題點을 認識하는데 留意해야할 內容들이 었다. 即 留係條件없는 國境線의 國際法的 承認, 相互拘束性을 가진 相手方의 認定 西獨側에서 부터 將來에 있어서 아무런 變更을 試圖하지 않는다는 것을 義務化하는일, 그리고 歐州國內에서의 平和의 方法에 의한 再調整을 斷念해야 한다는 등의 條件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이과같은 要求條件들은 獨逸에 있어서의 이데오로지-的 對立의 結果에서 오는 일이지마는 그것은 同時에 東西間의 人民들 사이의 根本的인 社会的 差異의 表現이기도 하며 특히 東獨側이 分明히 하고 있는바와 같이 「社會主義의 關心은…… 假想的인 모든 國民的 共通性보다도 優位」에 있다는 思考方式에서도 起因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東獨側의 態度에 대해서 聯邦政府外相「셸」(Scheel)은 궁극에 가서는 理性이 獨斷的인 自己 弁明보다는 더강한 질잡이가 될것을 希冀하면서 西獨政府는 名分主義나 이데오로지-에 구애되지 않는 政策을 추진할것이라고 응수했다. 엘플트會談에서 브란트首相도 獨逸民主共和國이 現存하고 있다는 事實을 承認하는 것만을 一方的으로 要求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西伯林과 西獨과의 運結이 이미 現實로 되어있는 것을 一方的으로 變更할것을 要求할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영도하는 政府로서는 中部歐羅巴에서의 關係
正常化와 緊張緩和를 위한 제반 努力은 伯林을 둘러싼 事態의 緊
張緩和와 正常化問題와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간단히 要約해서 말한다면 西獨政府의 對東獨政策의 目的은 兩國間
의 「特別하고도 密接한 關係樹立」에 있고 또 이러한 「關係正常
化는 形式的인 書類만으로는 不充分한것이며 兩獨의 住民들이 關係
正常化에 무엇인가 얻는것이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결국 獨逸内部
의 境界線紛爭이나 障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있다」고 할수있
다. 이와같은 目的들이 兩獨首相會談에서 達成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問題는 아직도 요원한 課題일것이다.

二. 西独의 言論体制과 对東独論調

1998

1998

1998

二. 西獨의 言論體制와 對東獨論調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은 言論權을 人間의 天賦的權利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政府組織法에서도 이러한 憲法精神을 反映하는 것으로서 政府組織으로서 「新聞公報處」(Presse und Information Büro)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위에서 부터의 여론의 操縱을 위한 政府機構가 아니며 또 그러한 根限도 부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新聞公報處」는 다만 政府와 言論機關과의 中繼役割을 할뿐이며 아무런 指示權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機構의 義務條項은 新聞·라디오·TV에서 반영되는 여론을 政府에게 中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聯邦機關 및 言論機關에 대해서 聯邦政府의 活動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對東獨言論政策은 体系的인 모습을 갖추고 計劃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基本的으로는 言論은 東方政策의 補完的 役割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對東獨言論政策이 獨立된 理論과 體系를 가춘다는 자체가 별로 뜻있는 아니다. 그러나 西獨社會는 말하자면 自由民主主義가 高度로 發達한 工業社會인 만큼 그 社會構造 자체가 複合構造이며 따라서 그것의 反映으로서의 言論體制도 複合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聯邦政府의 對東獨言論政策의 基底는 西獨社會의 言論體制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우선 西獨의 新聞, 放送, 出版의 現況과 이들의

統獨문제, 對東獨政府論調를 分析한다는 것이 基本課題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1. 言論體制 및 그 特徵

총괄적으로 보아서 獨逸聯邦共和國 및 西伯林에서 新聞이라고 이름부를수 있는 種類의 日刊出版物은 1328 個를 헤아리고 있으며 이들중 630 個가 주로 新聞으로서 分類될수 있고 이것들의 發行部數는 1870 만부가 된다. 이以外에서 定期刊行物은 전체로서 6,482 個가 되지마는 그部數도 莫大한것이어서 1億 5180 萬部로 헤아리고 있다. 그것은 教會團體나 기타의 宗教團體의 定期刊行物이 많기때문이며 이중 1610 만이 宗教關係出版이다.

主要新聞들은 대개 個人所有의 財産이며 이 新聞들은 제각기 支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西獨内部뿐만 아니라 海外情報의 綜合的인 通信業務를 취급하는 것이 「獨逸通信代行」 (Deutsche Presse - Agentur, dpa)이며 이 (dpa)의 通信을 거이모는 新聞들이 제재하고 있다. (dpa)가 中央通信社의 役割을 하고 있는 반면에 무수한 少規模通信社도 있고 이것도 약 500 個가 되며 이 通信社들이 815 個의 新聞들과 계약되고 있고 그중 145 個가 政治的 傾向을 띤 新聞들이다. (6)

西獨에서 현재 가장 代表的인 新聞은 「프랑크플타-, 알게마이네」 (Frankfurter Allgemeine)이며 32 만 4000 부, 「쥬트도이쉴. 차이퉁크=南獨新聞」 (Süddeutsche Zeitung, 뮌헨所在) 이

25만 6000부, 「디. 벨트=世界」(Diewelt, 함블크 및 西伯林所在)가 28만부의 판매부수를 가지고 있다. 이 수자자체는 우리나라의 日刊新聞의 판매부수보다는 많은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그 이유는 独逸사람의 傳統的인 新聞觀을 反映하는 것으로서 高級新聞이 數百萬部나 되는 販賣部數가 되면 도저히 그 主張을 뚜렷하게 堅持할수가 없는데 유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指導的 日刊新聞以外에도 「디. 짜이트=時代」(Die Zeit)라는 週刊紙가 있다. 이新聞은 25만 8000부의 부수를 가지고 있고 學門, 藝術, 文學, 政治論評에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水準이 높은 理論紙中的 하나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人口의 2倍以上이되는 人口의 나라 西獨에서의 有力紙의 판매부수가 三十萬以下로 유지되고 있는것은 独逸新聞의 特色이며 그것은 各新聞이 自己意見의 主張을 견지할려면 三十萬부以上으로는 困難하다는 「古典的」인 新聞觀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各新聞이 동시에 같은 論題를 가지고 同時에 캠페인을 벌린다는 일은 별로 없고 視각의 力點과 觀點을 달리하는 편집방법을 갖고 있다.

이러한 特色은 長短點이 있다는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첫째 自己意見의 堅持라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各新聞間의 意思統一이 없다는것은 世論統一의 形成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劃一的으로 世論이 統一된다는 것을 独逸사람들 자신은 危險한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時代의 世論統一이 실은 世論統一이 아니고 世論操作에서만 可能하였다는 것을

分別있는 사람이면 自覺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數百萬部の 部數를 갖인 新聞이 없는것은 아니다. 例컨대 「빌트.짜이퉁크=사진신문」 (Bild Zeitung 함블크 所在)는 公稱 450 萬부라는 歐羅巴에서는 暴例的인 新聞이 있다.

이신문은 말하자면 「센세이 셔너리즘」大衆紙이다. 그러나만치 有力紙들이 지식층을 주간으로 하는 反面에 大衆과의 結合이 약하다는 弱點을 補完하는 新聞이 「빌트.짜이퉁크」라 할수 있다.

또 有力紙의 部數가 적은 것은 이들 新聞들이 各己 社是로 내걸고 있는 것을 봐도 그 理由를 짐작할수 있다.

「프랑크플트 - 알게마이네」는 「모든 階層의 教養人들을 위한 新聞」을 표방하고 있고 「디.짜이트」는 「인테리들을 위한 週刊紙」를 표방하고 있는것을 보드라도 有力紙들이 大衆과의 結合에는 그리 神經을 쓰고있지 않는면을 엿볼수 있다.

그런 關係로 獨逸의 有力紙에게는 速報性에도 그리크게 神經을 쓰지않는 다는 特徵이 있다. 그것도 教養紙라는 意識에서 由來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것은 社會面記事의 輕視態度로서도 표현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各有力紙가 平均 政治. 外交記事를 三面~五面까지 내고 있고 經濟는 四面으로 되어있으나 社會面記事는 一面정도로 끌이고 있는데에서도 엿볼수 있다. 그것은 獨逸新聞의 편집자들이 「大衆에 영합하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데에서도 알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편집태도가 과연 民主主義的 言論의 態度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別문제로 하더라도 獨逸新

聞들의 傳統的, 保守的態度는 그대로 獨逸言論의 特色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獨逸의 各新聞들이 對東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論調를 펴고 있는가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우선 有力紙들의 政治的態度를 말할것같으면 가장 保守的인 것이 「디.벨트」紙이며 이신문은 다분히 民族主義의 色彩를 풍기고 있다. 그다음으로 「프랑크푸타.알게마이에」가 保守的이며, 반면에 「쥬드도이체.짜이퉁크」紙와 「디.짜이트」紙가 進歩的傾向이 強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디.벨트」紙는 西獨의 右派政意를 代表하고 있으며 政治的으로는 基民黨(CDU) 동 同社同盟(OSU)의 路線을 支持하고 있으며, 당연히 現在 執權黨인 브란트의 中道左派의인 政權이나 그 政治路線 특히 「東方政策」에 대해서 反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디.벨트」紙가 連日連中 「東方政策」을 공격하고 伯林문제에 있어서 브란트가 低姿勢를 취한다고 맹렬한 攻撃을 加했던 것이 1971년의 年初以後의 特徵으로 지목할수 있을 정도다. 「디.벨트」紙의 對「東方政策」攻撃에서는 社長인 「악셀.슈프링거」(Axel Springer) 自身이 自己의 署名이든 論文들을 쓰고 있을 정도로 積極的인 것이다. (Alex Springer 에 대해서는 후술) 그러니까 이신문의 記事나 編職은 주로 現在 野黨으로 있는 基民黨의 政策의 소개와 支持로 충만되어 있으며, 記事作成에 있어서도 基民黨系統의 政客들과의 協助가 緊密하기 때 문에 팔목할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디.벨트」에 비하면 같은 保守主義路線이면서도 「프랑크플타.알게막이네」紙의 保守主義는 教養主義와 融和를 보이고 있는 신문이며 編輯首腦陣營을 보아도 「엘할트」前首相, 西獨聯邦銀行總裁를 지낸 「칼.브렛싱크」등이 參與하고 있으며 基本的으로는 基民黨路線을 벗어날수 없는 新聞이다.

이新聞의 保守의性格의 一面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서는 1970년 3월에 「브란트」首腦와 東獨首相「슈토프」가 「엘플트」에서 會談한것에 대해서 「엘플트 以後」라는 同紙 社說에서 「從來와 같은 東西獨逸의 國家的統一이라는 思考方式은 이제 더이상 通用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論說이 게재된것이 문제가 되어 編輯部幹部가 解任된 事件이 發生했던 일이 있었다. 當然한 일이지마는 이와 같은 保守的傾向에 대하여 反발도 일어날수 있는 것이다. 원래 「프랑크플트」라는 都市는 大學中心의 都市였고 過激學生運動의 本拠地의 하나로서 傳統이 있었던곳인만큼 「프랑크플타.알게막이네」紙의 保守的傾向에 反발하여 進歩的傾向을 보이는 「프랑크플타.문트샤우」紙에 學生層・青年層의 關心이 쏠리고 있는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西獨의 言論을 論함에 있어서 빼놓을수 없는것으로서 週刊紙의 存在가 있다.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디.짜이트」紙가 高級教養誌로서 인테리를 상대를 하는것이라면 「데어.슈피-겔」(Der Spiegel)紙는 新聞이라기 보다는 週刊雜誌의 性格을 가진 政經雜誌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데어.슈피-겔」紙는 「함블크」에서 出版되고 있으며 현재 百八萬部の 發行部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雜誌는 처음부터 野党精神으로 出笈하였고 体制批判도 사양치않으면서, 풍부한 情報源과 調査를 土臺로해서 언제나 政府의 취약점을 들추어내는데 큰能力을 發揮해왔기 때문에 「데어·슈피-겔」誌의 權威는 確固한것이다. 아데나우워-政權에 대해서 그 批判의 날카로움은 定評이 있었고 當時의 國防相「요세프·슈트라우」와의 갈등에서 드디어 「슈트라우스」를 失脚케한 功勳을 갖고 있다.

이상으로서 西獨言論界의 現況의 大略을 論하였으나 한가지 重要な 點을 지적해야 하겠다. 그것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은 全國의 規模에서 影響力을 가진 日刊新聞들의 發行部數는 미소한데 比해서 약 500종의 新聞이 매일 2,000만부의 新聞을 發刊하고 있기 때문에 所謂 有力紙는 量的面에서 劣勢라 할수 있다. 그러면 2,000만부라는 수의 대부분은 地方紙의 發行部數에서 由來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西獨은 地方紙의 王國」이라고 하는말은 바로 이와같은 理由에 연유한다. 一般的으로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首都에서 發刊되는 大新聞이 全國의 最有力新聞으로 꼽히는것이 보통이지마는 西獨에서는 그렇지 않다. 聯邦首都인 「본」에서 發刊되는 新聞은 「게네랄·안짜이거-」紙와 「보나-·룬트샤우」紙의 두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十五만부정도의 小新聞이며 「본」의 住民들만이 읽는 地方紙에 불과한 것이다. 地方紙가 有力한것은 歷史的背景이 있는 이야기지마는 그 傳統이 現在에까지 지속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現在 西獨내에서 一萬部미만의 發刊部數를 갖인 新聞이 52%나 되고 있다. 이 사실은 西獨에서의 輿論이란 심히 土着的인 분위기에서 形成되며 思考方式의 振幅이 比較的 限定되는 保守性的의 根柢의 一部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統計에 의하면 西獨에서 地方紙購讀者數는 2,460만명으로서 이것은 全成人의 $\frac{2}{3}$ 에 該當되는 것이다. 이중 有力紙를 읽는 사람의 수는 2,030만명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만으로 一方的으로 獨逸사람들의 社會意識의 地域的固着性만을 말할수는 없는것이다. 統計에 의하면 地方뉴스를 읽는 사람이 85%, 一般社會뉴스를 읽는 사람 86%가 되든가 하면 一面의 政治記事 59%, 社說 40%, 一面以外的 政治記事를 읽는 사람이 52%로서 그렇게 地方的固定性만을 말할수는 없는것이다.

2. 對東獨論調

西獨은 戰後 由來없는 言論自由를 누려온것은 否定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西獨言論의 自由가 가장 強하게 要請되는 일은 獨逸의 再統一, 東西關係, 東方政策에 關聯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감되게도 이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것이다. 위에서 言及한 有力紙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테-마에 있어서는 政府의 方針이나 政策에 대해서는 部分的批判은 하면서도 原則的인 離脫現象을 보이지 않는다는 点이다. 이事實은 地方紙가 優勢하고 保守的傾向이 強한 西獨에서 만약에 新聞이 政府의 對東獨政策을 正面에서 反對하고 나서면 政府와 大衆사이에서 商業紙로

서의 立地點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설명을 할수 있지마는 大衆에 영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有力紙의 編輯人들의 디렘머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西獨言論의 對東獨論調를 特徵的으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新聞의 都市」라고 하는 함블크에서의 新聞族譜에서 부터 言及해야 하겠다.

함블크에는 두가지의 新聞系列이 있다 .

그하나는 악셀 . 슈프링거 -系이며 이系列속에는 「디 . 벨트」紙 , (日刊) 「벨트 . 암 . 존타크」紙 (日刊) 「함블가 - . 아 - 벤트브랏트」紙 (夕刊) 「빌트 . 짜이퉁」紙 (日刊) , 「빌트 . 암 . 존타 - 크」紙 (日刊) 「헤 - 르 . 쯔」紙 (Hör, zu) (테레비 , 라디오娛樂誌週刊) (다스 . 노이에 . 브랏트」紙등을 發刊하는 西獨唯一의 매스 . 콤 . 콤프렉스가 있고, 反面에 「프레스 . 하우스」를 拠点으로하는 또하나의 系列이 있다. 이 빌딩에서는 「함블가 - 에코」 (日刊) , 「함블가 - . 물겐포스트」 (日刊) , 「디 . 짜이트」紙 (週刊) , 「슈테른」誌 (週刊) 「데어 . 슈피겔」紙 (週刊) 등이 집결되고 있다. 이두개의 系列은 企業系列의 差는 勿論이지마는 그것보다는 이두개의 新聞系列의 政治路線에 差가 있고 따라서 對東獨新聞論調도 자연 差를 보이는 것이다.

「슈프링거」系列은 위에서 言及하였지마는 政治的으로는 保守路線이며 現實的으로는 基民党的 政策을 積極的으로 지지하는 新聞들이기 때문에 對東獨路線에서는 「아테나우어」時代와 本質的的差異를 보이지않고 있다.

이에 反해서 「프레스·하우스」系列은 急進的自由主義的路線을 밟고 있기때문에 특히 對政府關係에서는 갈등이 끝일날이 없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1962년에 있어났던 「데어·슈피-겔」紙와 聯邦政府國防部와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有名한 事件이며, 이 事件은 「데어·슈피-겔」紙가 國防上의 弱點을 暴露하여 數名의 幹部가 체포되고 起訴되는 일 때까지 發展하고 결국 國防長官의 退任에 까지 이르게된 事件이었으나 그후에도 類似한 事件들이 계속 發生하였고 특히 1965년에는 東獨과의 境界線兩側에 原子地雷帶를 부설할 計劃이 暴露되어 國民에게 큰 衝擊을 준일이 있었고 同誌發行人 「루돌프·아우구슈타인」(Rudolf Augstein)은 이사건에서도 起訴된 일이 있었다. 勿論 保守的風土와 強한 反共의 分 위기를 가진 西獨에서 이러한 報道傾向에 대한 政府側이나 大衆의 反應은 반발적인것은사실이며 大衆的支持를 받기가 어려웠던 過去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政府와 大衆에서의 反발이 심하면 심할수록 急進的自由主義的論調는 使命感을 더욱 굳게 가지는 傾向을 보였다.

例컨대 1964年7月22日号 「데어·슈피-겔」誌는 「추악한 獨逸人」이라는 테마밑에서 特輯을 내기도 하였고 여기서 外國人의 對獨逸人觀을 여지없이 소개하여 國民의 猛烈한 反발을 사기도 하였다. 브란트政權樹立後에는 이와같은 事情은 크게 달라지기는 하였지마는, 그전까지는 新聞이나 라디오등에서 急進的自由主義的政治意見을 상세하게 발표할수 없기때문에 著書의 形式으로 意見을

世上에다 묻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쾨른」市에 있는 西部独逸放送局의 政治部長으로 있던 「페-터-벤더-」는 「積極的 緊張緩和」(1964)라는 책에서 東独과 国交를 하는 어떠한 나라와도 国交를 樹立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原則을 正面으로 反對하고 오히려 東独과의 接近援助를 提唱해서 物議를 이르킨 일이 있었으나, 문제는 이 책의 발행을 함블크의 「디.벨트」紙가 전재를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傾向에 대해서 「슈프링거-」系新聞은 勿論 반발하고 있으며 「디.벨트」紙가 教養人의 新聞으로서 比較的 온건한데 反해서 같은 系列의 「빌트.짜이퉁크」紙는 그야말로 大衆紙로서 独逸의 保守的센세이쇼내리즘의 代表紙이고, 따라서 「브란트」의 對東独政策에는 선동적으로 反論을 펴고 있는 것이다. 典型的인 例로서 1970년 聯邦政府의 代弁人이 「슈프링거-」系의 新聞은 事實을 歪曲報道하고 있다는 發言을 한데 대한 응수책으로 同紙一面에다 86名의 編輯局員全員の 사진과 그들의 経歴을 게재해놓고서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決議文을 크게 밖아놓은 일도 있었다. 이러한 事件은 勿論 1968년에 있었던 独逸의 過激學生團體인 社會主義獨逸學生團體(SDS)와 正面衝突한 일이 있고 右翼青年에 의한 學生指導者 「두츠케」에의 射擊事件 및 學生들에 의한 西伯林 「슈프링거-本社」放火 습격 사건等 「슈프링거-系」의 保守右翼의 傳統은 自他가 公認하는바이다. 그러한 背景도 있고 해서 「엘플트」兩獨首相會談 때에는 「빌트.짜이퉁크」紙記者의 查証이

거부된것을 보면 「브란트」政府나 東獨政府에 대해서 「스프링가-系」新聞은 골머리아픈存在인것은 틀림없다.

3. 言論自律規制문제

自由主義의 本質은 正當한 競争을 可能케 해주는 基本條件을 確保하는데 있다. 그것은 政治·經濟·文化·言論面에서 모두 해당되는 말이다. 「브란트」政權出現이후 西獨의 言論은 새로운 規定 밑에서 운영되어야 할 몇가지의 理由가 內在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악셀·슈프링가-」系의 新聞이 「問題點」으로서 存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新聞界의 帝王」이라고 불리워지는 「슈프링가-」는 社会民主党政權에 크나큰 障害로 있는 것이다. 西獨에서 一般的으로 알려져있는 말「브란트首相의 가장 거북한 敵은 울프리히트도 아니며 「키-징가-」(基民党党首)도 아니며 그것은 바로 「슈프링가-」이다」이 이사정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현재 「슈프링가-」系의 新聞은 西獨의 新聞市場에서 39.2%를 占하고 있으며 특히 함발크나 西伯林에서는 日刊紙의 70%, 日曜新聞에서는 88%라는 놀라운 独占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사정은 당연히 「브란트」政權의 東方政策施行에서 커다란 難點이 된다.

「스프링가-」는 新聞에서 典型的인 콘체른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過去에도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聯邦政府는 이문제를 해결하는 한 方法으로서 1968년에

連邦政府 칼텔庁은 新聞關係, 放送, 出版事業者등으로 구성된 新聞委員會를 構成해서 칼텔庁長으로 「에벨할트. 귄터 -」(Eberhard Günther)가 議長이되어 우선 新聞의 市場独占문제를 檢討해서 報告書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이事業은 新聞의 市場独占은 輿論을 独占할수 있는 危險이 있다는 立場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報告書에서의 新聞의 市場独占率과 言論自由의 危險性과의 關係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新聞의 경우, 一發行会社の 市場独占率이 20%를 넘으면 独占의 弊害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世論이 操作될 危險性이 생기며 言論의 自由가 침해된다. 이를 위해서 專門的인 監視機關이 政府와 議會에 대해서 그 發行会社の 影響을 계속報告하고 對策을 提案해야 한다.

2) 一新聞發行社の 占有率이 40%를 넘을때 그것은 이미 言論의 自由가 침해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때에는 그 發行会社が 가지는 新聞을 分離해서 占有率을 줄여야 할 必要가 있다.

3) 新聞과 雜誌의 發行을 兼하고 있는 경우는 新聞, 雜誌중 어느 하나가 市場占有率의 20%를 넘을때에는 다른 하나가 10%라도 言論의 自由가 침해된다. 또 新聞, 雜誌중 어느 하나가 占有率 40%를 넘으면 다른 하나가 5%라도 마찬가지로 言論의 自由는 침해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尺度에서 보면 슈프링가-系의 新聞의 市場独占率은 1971

년현재 39%強, 雜誌의 그것은 18.2%이고보면 「귄터-」委員會事業이 「스포링가-」의 存在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미 第三項에 따라서 「슈프링가-」系는 이미 言論自由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귄터-」委員會의 규정에 따라 우선 1971년에 와서는 「스포링가-」系雜誌市場独占率은 9.6%로 떨어져서 10%의 규정을 下廻하게 되었지만은 新聞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며, 「슈프링가-·콘체른」으로서 필름 및 TV에 進出함으로써 콘체른을 유지 확대해갈려는 傾向은 뚜렷한것이다. 1972년의 「브란트」再執權은 「귄터-」委員會의 活動效果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았을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브란트」의 東方政策 특히 對東獨論調를 調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는것은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放送体制과 對東獨論調

西獨의 放送体制은 戰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特質은 「多元的構造」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放送体制自体가 「聯邦制的秩序」와 「放送의 社會化」라는 두개의 構造의 合成이기 때문이다.

前者는 各州가 그 法律 및 州間相互協定에 따라서 放送事業을 한다는 聯邦制的放送制度를 말하는 것이며 后者는 州内の 各種團體機關들이 選出派遣하는 委員으로서 構成되는 合議制的 監督機關에 따

라서 放送의 社会的規制를 하는 放送委員會制度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放送体制은 西独基本法の 理論的歸結이며, 그 具體的인 모습은 1961年 2月의 憲法裁判所의 判定에 나타난것이 있지만 그 直接的인 동기는 1960年 「아데나우어」首相이 聯邦政府가 全額出資하는 「獨逸·텔레비전」會社 設置案을 낸데 對해 北部地方 四個州가 提訴하였고 이는 言論自由의 침해라는 判決이 내렸던 것이다.

判決文은 이와 같은 聯邦政府全額出資의 텔레비전會社設置는 基本法 五條에서 保障하고 있는 放送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提訴事件이야 말로 西獨의 放送制度의 기틀을 確定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現在 西獨-에는 十二個의 放送協會가 있다. 이 모두가 公營이며 民間放送은 許可되고 있지 않다.

이들중 九個는 라디오·텔레비전兼營이며 州 내지 州間協定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規模가 큰것부터 列挙해보면 「西部獨逸放送協會」(「케른」所在) 北部獨逸(「함블크」소재), 「바이에른」(「문헨」소재), 「南西獨逸」(「바-덴·바-덴」소재), 「헷센」(「프랑크푸르트·암·마인」소재) 「南獨逸」(「슈트트갈트」소재),

「自由베르린」(「西伯林」소재), 「자-르」(자-르부룟켄)소재)
「브레멘」(「브레멘」소재) 등이며 그 규모는 각기 다르다.
여기에 따라 텔레비전受信契約者數를 보면 역시 제일 많은 것이 西
部独逸放送協會의 480萬인데 비해서 「브레멘」은 불과 25萬정도
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全体契約者數는 1,670만에 이르고 있다.
이九個의 放送들은 中繼에 의해서 「独逸第一텔레비전」(EDF)의
이름으로 第一프로로 編成되고 있고 第二프로로서는 第二텔레비전
(ZDF)로 編成되고 있다. 그以外에도 對外國放送(Deutsche
Welle 및 Deutschlands Funk)가 있으나 이것만은 聯邦法에
따라서 設置되고 있다.

放送協會는 行政權力에서부터 獨立을 보장하기 위해서 公法上的
營造物이라는 法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社會의 各階層에 의
해서 組織되고 있는 放送委員會의 監督下에 있다.

州放送協會의 財源은 受信料收入과 廣告收入에서 充당되나 后者는
全体收入의 $\frac{1}{3}$ 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額數는 受信者數의
다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때문에 州間의 調整에서 해결되고
있다. 이와같이 해서 西獨의 放送은 公營放送이 独占하고 있는
狀態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制度가 定着해가고 있는것이

実情이다. 이制度가 現在로서는 變更될 可能性은 없고, 적어도 西獨의 政治·行政의 基本構造가 聯邦制를 유지해가는 限에 있어서는 지속될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理由가 政治의 道具로서의 役割을 放送이 하고 있는 限州의 政治家들에게는 放送의 利用이라는것은 빼놓을수 없는 重要性을 갖이는 것이다. 그래서 中央集權的放送制度는 經濟的合理性 및 技術的便利性에도 불구하고 實現이 어렵게되어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理由는 州放送委員會制度는 州의 各階層이 參與하는만큼 放送制度는 일종의 政治進出의 채널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바이에른」 등, 南獨地方에서는 放送協會가 政黨勢力構成과 密接한 관계가 있고, 放送協會職員도 자연히 政黨과의 유대가 強한것이다. 例컨대 「본」에 있는 放送者-너리스트를 對象으로한 調查에서 放送者-너리스트의 政黨加入率은 新聞者-너리스트의 그것에 비해서 심히 높은 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新聞者-너리스트가 11%인데 대해서 放送은 28%에 이르고 있다는 事實이 밝혀지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放送制度의 聯邦的組織原理로 政治的 中立性을 유지하고 있는것은 운영에서의 良識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勿論 西獨에서 商業放送의 企圖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슈프링 거 - 」系에서 商業放送에 進出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자 - 린」州에서는 1967年6월에 放送法을 改定해서 商業放送을 할수있는 素地가 마련되었지만은 그것도 州政府의 認可를 必要로 하게되어 있고 自体内에 監督機構의 設置를 규정하고 있지만은 現在까지 商業放送이 成立되었다는 報道는 없다.

反面에 商業放送을 反對하는 勢力이 強大하다는 點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社民黨을 爲始해서 勞動組合, 教會의 勢力들은 모두 商業放送에 反對하는 政治·社會勢力이며 社民黨은 그의 「고 - 데스벨크」綱領에서 「放送은 그 公報的 性格을 保持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勞動組合聯盟 (DGB)도 1964年의 放送政策에 관한 聲明에서 放送事業은 公的機關에서 運營해야 할 것이며 私的營利關係를 갖인 集團에 매질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教會도 宗教的倫理觀에 立脚해서 商業放送을 反對하고 있는것은 더이상 설명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言及해야 할일은 西獨의 新聞界에서 新聞의 商業主義化의 傾向과 資本의 集中化傾向에 대하여 編輯者의 經營參加에의 要求가 늘어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일은 放送界에서도 있는 일이다. 1969年봄에 放送의 編輯者 및 記者들이 「編輯者綱領」을 내걸고 放送의 言論自由를 主張하게 된 것이다. 이 綱領에 따르면 「放送에 있어서의 表現과 情報의 自由라는 意味에서의 저-너리즘의 임무는 國家나 政黨, 經濟的 社會的 利益團體의 惡影響에서 부터 完全히 自由스러움으로서 비로소 可能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綱領은 現在 거의 모든 放送協會에 普及되어 있고, 이 運動은 勞動組合이 추진하고 있는 放送協會內에서의 經營參加運動의 뒷받침으로 더욱 強化되어가고 있다. 參考삼아 여기에 「編輯者綱領」에서 몇개의 引用을 해 본다면 우선 「編輯者는 스스로의 信念에 反해서 行動하고 執筆하고 또 責任追窮을 당할것을 強요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와 같은 일을 거부함으로써 編輯者에게 不利한 일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하고 「責任을 지고 編輯에 協力하기 위해서는 그 前提로서 모든 勞動條件에 對해서 完全한 情報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프로編成에 營養을 출 수 있는 人事, 予算, 機構의 諸問題에 關해서 決定하기 前에 事前에 프로編成에 責任을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취지가 周知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意見은 청취되어야한다. 어느 프로그램이나 어느 연속물이 中止되거나 또 새로 시작되거나 혹은 制限, 改変되어야 할때에는 그러한 問題에 對해서 責任을 져야할 사람은 妥當한 時機에 關係된 프로編輯者(製

作者)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編輯者들은 그 이유의 설명이 編輯者委員會 또는 編輯者會議에 대해서도 行해질 것을 請求할 수도 있다. 協會가 提示한 理由가 編輯者委員會 내지는 編輯者會議의 多數의 멤버-를 納得시킬수 없을 때에는 編輯者委員會 또는 編輯者會議는 그들의 異見을 放送協會의 外部에서 開陳할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兪는 放送界에서도 放送의 民主化를 主張하는 움직임이 抬頭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對東獨放送言論에 대해서도 중대한 影響을 미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放送界内の 民主化運動은 勞動組合運動과 步調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運動의 進展은 社會主義 내지는 急進的自由主義的 論調를 助長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이미 新聞에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대해서는 原理的으로는 同一한 어프로-취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三. 对 東 独 公 報 政 策 的 变 遷

第 三 章 第 一 節 第 一 項 第 一 款 第 一 項

第 三 章 第 一 節 第 一 項 第 一 款 第 一 項

三. 對東獨公報政策의 變遷

1. 「키-징거-」時代

「아데나우어-」政權以來 할슈타인原則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나 「키-징거-」를 首班으로 하는 基民-社民大聯政으로 비로소 變化가 對東獨政策에 일기 시작한 것이다. 1968年2月12日 「키-징거-」首相에 의해서 國會議長에게 提出된 報告書에서 東獨에서 부터의 新聞雜誌取扱에 관한 聯邦政府와 政策의 施行과 그 效果에 관한 說明이 있었다. 이 報告는 基民黨以後의 對東獨言論政策의 性格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基本資料가 될수 있다.

이 報告에 따르면 1968年5월9일에 議會에 提出된 法律案은 이른바 政治的 犯罪處罰法의 修正案이라고 불리워지는 才八次 刑法改定法律案인바 이것은 1968年5月29일에 議決된바 있었고 이 法律이 施行된지 六個月이 지나는 동안 이 法律의 八條에서 규정된 條項의 실시에 관한 經驗을 볼것 같으면 아래와 같다. 1968年8月1日부터 實施된 이 八次刑法改定法律에 따르면 1909年3月31일까지는 憲法에 대해서 敵對的인 宣傳資料의 導入과 配布의 禁止 條項은 이 法律의 空間的 適用範圍밖 (東獨을 말함)에서 定期的이고 계속적으로 發行되며 公開的으로 出版되는 新聞이나 雜誌에 대해서 該當되지 않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新聞雜誌라 하여도 法律의 正하는 바에 따라서 우편으로 新聞 送達하는 것이나 交易을 통해서 金錢決濟를 한 그러한 新聞雜誌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에서 定해진바로서 이와 같은 禁止規範의 어느 部分은 伯林州에는 해당되지 않는 面이 있어서 伯林的 參議院은 1968年7月12日의 聯合軍司令部의 委任權限에 立脚해서 1968年7月23日에 制定한 法令에 의해서 伯林에 대해서도 才八次刑法改定法律의 八條와 같은 內容의 規定을 實施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伯林이나 기타의 聯邦領土내에서는 實質적으로 同一한 法的措置가 취해진 것이다.

이러한 法的節次에 따라 聯邦政府經濟相은 兩地域間(東西獨間)의 交易을 위한 一般許可才一號 (1968年7月22日付, 官報才138, 1968.7.27)에 의해서 東獨에서 부터의 新聞 및 雜誌에 관한 地域間交易의 法的許可를 하게된 것이다.

이로서 聯邦財政相 및 稅關相도 該當 稅關관리와 稅關에다 才八次刑法改正法律의 八條의 規定에 相當하는 限 東獨에서 부터의 新聞雜誌輸入을 위해서 우편, 新聞, 發送이나 交易에 妨害가 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前提條件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혐의를 갖일만한 충분한 根拠가 顯在할 때에는 檢察이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檢察權의 發動은 1961年 5月2日 發布된 刑法上 또는 기타의 搬入禁止 物品에 對한 監視法에 依拠하는 것이다.

그 以外에도 聯邦領土내에로 輸入된 新聞 雜誌가 과연 東獨에서 公開적으로 發行된 것인가 하는 同一性의 確認은 항상 檢査되고 있다. 그 理由는 특별히 「西獨용으로 發行된」新聞, 雜

誌의 輸入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確認을 할수있는 根拠로서는, 輸入된 新聞雜誌가 과연 東獨에서 定期的으로 公開의으로 發行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東獨內에서 出版되고 있는 모든 新聞, 雜誌의 名單에 따라서 對照함으로써 確認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全獨問題相도 1968年5月15日의 書翰에서 「페른」市에 있는 獨逸書籍, 新聞, 雜誌都売協會에 대해서 予見되는 才八次刑法改定法律八條의 規定을 소상히 알리고 東獨에서 부터 新聞 雜誌를 輸入하는 会社들에게 이 規定을 알릴것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이 法律의 施行과 동시에 即時로 聯邦領土內에서 東獨에서부터의 新聞, 雜誌의 購入이 可能할 수 있는 事前措置를 취해주기를 요구했다.

주로 東獨의 發刊物들을 輸入하는 어느 有名한 新聞販売會社는 才八次刑法改定法律案의 決定以前에 東獨側의 供給처와 部처와 部數 擴張때문에 交渉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결국 공식적으로는 可能하지 안했던것이다. 그후 이 法律의 施行後 그會社는 1968年 「라이프치히」가을 見本市場이 열렸을때 新聞, 雜誌供給量의 現在線보다더 올여달라는 交渉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不可能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東獨에서 부터의 新聞, 雜誌의 수송방법으로서는 聯邦우체국의 신문 우편사무의 許可申請이 있어야 하는것인데 이때까지 그것은 한 건도 없었다. 원래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申請은 東獨側의 供給처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聯邦領土內의 委任받은 都売商에 의

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쪽의 都売商이 이미 東独側의 供給처에서 供給을 약속했다는 前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地域回交易責任部 処에서도 東独의 对外經濟省에 대해서 新聞, 雜誌 供給을 요청 (1968年8月29日) 한 일도 있었으나 明白한 回答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聯邦政府의 以上과 같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才八次 刑法改定法律 八条가 東独에서 부터의 新聞, 雜誌輸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수 있는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東独社会統一党 (SED)의 指導層이 東独의 新聞, 雜誌가 聯邦領土안에서 그리 큰 共鳴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反面에 西独住民들의 東独의 新聞, 雜誌에 대한 反應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問題도 重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1968年8月 「바드. 고네스벨크」에 있는 「応用社会科学研究所」가 西独住民들의 東独新聞에 對한 意見調査를 한 일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全体被質問者 中 78%가 아직 한번도 東独新聞을 본일이 없다고 하였고 18%가 본일이 있고, 14%는 無回答으로 되어있다.

이들중 53%는 東独新聞을 구독할 興味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반면에 32%는 東独新聞購読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문제에 對한 無回答은 15%이다. 그리고 全体被質問者중 64%가 東独新聞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3%가 「노이에스.도이취란트(새독일)」 (Neues Deutschland) 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이 調査는 東伯林을 제외한 18才以上の 男, 女 935名을 標本

抽出해서 한 調査였으며 方法論으로서 階層別意見도 잘 表現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聯邦政府側에서도 이問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全獨問題相은 이와 같은 調査를 1968年8月에서 12月 사이에 한번 더 해주기를 요망하였지만은 研究所側으로서는 지난번 調査後 時間이 경과하지 안했고 또 東獨新聞이 더 많이 들어올 不能性도 없다는 理由로서 調査를 기피하였던 것이다.

물론 1968年의 政治的 犯罪処罰法の 改正(才八次刑法改正法律 八條)以前에도 憲法上 敵對的인 內容을 갖인 東獨新聞, 雜誌購入은 州의 內務相의 許可로서 可能하였던 것이다. 例컨대 學術研究機關 같은 데에서는 이와 같이 해서 東獨의 新聞, 雜誌를 購入했던 것이다. 물론 憲法上 敵對的이 아닌 出版物들, 例컨대 專門雜誌등은 才八次刑法改正法律의 施行以前에도 州內務相의 許可없이 東獨에서 購入할수 있었다.

1967年의 統計에 의하면 西獨住民들이 政治的, 非政治的인 모든 종류의 東獨新聞, 雜誌 합해서 6,500 종을 注文했으며, 1968년에는 6,300 종에 달한 것으로 予見된다고 報告되고 있다.

2. 「브란트」政權時代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才八次刑法改正法律 八條에 따라 1971年3月31日까지는 東獨의 불온간행물이 刑法才一章 86條-모든 憲法敵對的 宣傳媒體의 流布는 処罰된다 —의 適用이 保留되었지만

는 聯邦政府는 国会의 第5期 177次會議(1968, 5, 29)의 결정에 따라 上記法律의 施行效果에 대해서 報告해야 한다고 決議한바 있었다.

「브란트」首相의 이름으로 議會에 제출된 1969年度報告(1970, 4, 13)는 聯邦政府의 對東獨言論政策의 實際內容을 알수 있다.

우선 結論부터 말해서 이改正法律이 実行된 이후 1969年の 1年 동안 法適用의 경우가 한件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東獨內에 있는 供給처가 聯邦政府체신의 우편신문송달을 위한 許可申請에 필요한 許可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東獨政府가 東獨新聞들이 聯邦領土에서 配布되는 것에 대해서는 興味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대체 東獨新聞이 西獨國民들에게 宣傳的 效果를 올릴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聯邦領土內 및 西伯林에 있는 여러 輸出入会社들이 東伯林에 있는 輸出入会社와 더불어 政治新聞供給部數를 늘릴것을 여러번 協議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안했다는 것에서도 알수있다. 그리고서도 이러한 要請을 거부하는 理由도 一切 밝히고 있지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東獨新聞輸入은 그것에 배당되는 額數가 적기때 문에 新聞交易를 통해서 供給받기도 불가능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交易의 方法을 통한 新聞供給을 위한 節次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주로 東獨의 거의 모든 出版物을 輸入하고 있는 한 有名한 新聞輸出入会社의 資料에 立脚해서 만들어진 內獨關係者의 發表에 따르면 1968년에 비해서 1969년에도 政治色

彩의 新聞, 雜誌의 供給이 大同小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報告에 의하면 55종에 每月 5,370 部數로 되고 있다.

이 중에서 政治的 日刊新聞은 약 3,000 部 이미 그중 1,700 部가 「노이에스.도이취란트」라는 東獨社會統一黨(SPD) 機關紙로 되어있다.

東獨政府가 新聞, 雜誌部數의 增加에 대해서 아무런 誠意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聯邦共和國領土내에서 東獨新聞, 雜誌에 대한 關心度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聯邦共和國內에서의 東獨新聞, 雜誌에 대한 關心度는 東獨政府가 許可하는 供給量을 넘어서고 있는것은 確實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東獨政府가 供給量을 늘리지 않고 있는 사실은 1961年 5月24日 불온문서 搬入禁止를 監視하는 法律이 制定된 이후 이 法의 施行經驗에 비추어 나타난 事實 즉 聯邦領土內的 많은 사람들이 東獨新聞을 私信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다는 理由에서 설명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監視를 통해서 東獨에서 특별히 「西獨用」으로 만들어지는 印刷物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綜合적으로 봐서 刑法改正法律施行이후에도 東獨에서 부터의 新聞, 雜誌搬入에 큰 變化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對東獨言論政策의 實際面에서 事態의 本質을 설명할 수 있는 事件이 있다.

그것은 才八次 刑法改正法律 八條에 의해서 길이 터인 東獨新聞.

雜誌의 供給不足에서 由來되는 것으로서, 1964年에 情勢判斷의 목적

으로 東獨에서 新聞을 우편으로 부치게 한 한市民의 憲法訴願에 대해서 聯邦憲法裁判所는 1969年10月3日에 判定을 했는데 그 判決文에서는 東獨이 現在까지 刑法改正法律에서 길이 터인데도 불구하고 新聞 雜誌를 輸入케 하지 않게하고 있는 限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일은 普通우편을 통한 定期刊行物에 관한 한 個人的 情報 熟知 權利로서 考慮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이 判決은 사실은 情報 熟知 權利도 문제이지마는 聯邦憲法裁判所가 才八次 刑法改正法律 八條의 規定이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 것임을 判決한 것과도 같은 뜻을 갖는 것이다.

概觀적으로 봐서 東獨의 地方新聞의 輸入은 全然히 없고 그 反面에 「經濟」나 「統一」과 같은 政治色彩를 띤 雜誌의 輸入에는 그리 큰 困難이 없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傾向으로서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에 대한 수요는 여타의 政治的 新聞에 비해서 수배로 크다. 1970년은 前年(55種)에 비해서 66종의 刊行物을 수입했으며 月平均 수입부수는 4,700 부에서 5,350 부를 오르내리고 있다. 月平均을 치면 5,000 부를 넘는 셈이나 이중 日刊新聞이 약 2,800 부(1969년에는 3,000 부)이며, 이중 1,680 부 정도(1969년에는 1,700 부)가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1969년에 비해서 위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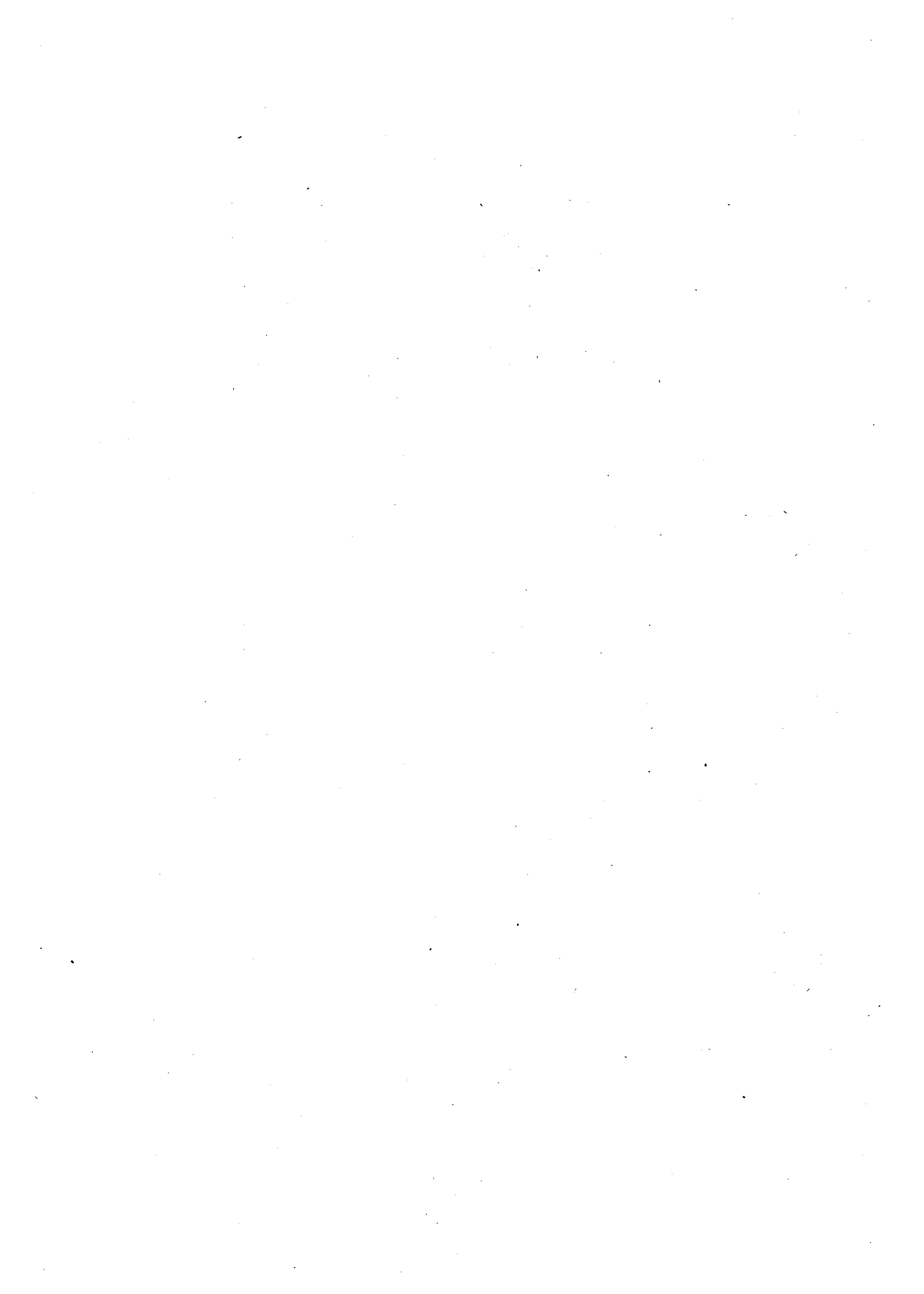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聞輸出入會社의 說明에 따르면) 수요를 不足없이 채우고 있다고 하니, 그것은 西獨住民들의 東獨新聞에 대한 興心의 沈滯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또한 新聞注文에 있어서 당해야 하는 東獨官憲의 拒否의 態度에 대한 西獨住民의 反 現象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否定할수 없는 事實로서 지적해야 할 것은 「엘플트」會談, 「킷셀」會談과 「갈」西獨首相의 會談, 「브란트」首相의 再執權으로 東方政策이 그 本軌道를 찾아 올라설려고 하고 있는 現情勢下에서는 西獨의 住民間의 個人的 수송의 方法으로 東獨의 新聞, 雜誌가 西獨住民의 손에 보내지는 數는 交易의 루-트를 통해서 오는 數보다는 능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事實은 1971年3月29日의 「브란트」首相의 議會에 대한 報告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한번 더 지적해야 할 사실은 檢察에나 監視機關에 對해서 東獨에서 부터의 新聞, 雜誌우송때문에 고발되는 사건은 그리 흔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은 聯邦 憲法裁判所의 判決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聯邦會議에서는 1970年12月9日의 才84次會議에서 西獨關係相에게 才八次刑法改正法律 八條를 無期限延長할 法律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八條의 改正案이 이 1971年3月10日에 議會를 通過하여 1971年4月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이 改正案은 出版物導入方法의 制限을 철폐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



四 . 東 獨 의 反 応

海 对 上 海 米 子 監 計
... ..

四 . 東 獨 의 反 応

1 . 「엘플트」 會 談

4半世紀에 걸친 東西獨의 冷戰체制的 對立을 言論面에서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키-장거-」 時代에서 變化의 소감이 생기면서 「브란트」 時代에서는 더욱 그變化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翻期的인 契機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西獨首相의 會談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70年 3月 19日의 「엘플트」 會談에서 「브란트」는 「우리 독일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일을 150% 하고 있다. 만약에 兩側이 조금식만 後退한다면 벌써 몇가지의 일을 할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점에 대해서 「슈토프」는 「나는 이 會談을 轉機點으로 보고서 한다」고 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事態는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 會談에서 兩側의 最大要求는 서로 合意가 되지는 않았지마는 最少限의 共通點으로서 西獨政府는 아래와 같은 結論에 도달한것 같이 보였다.

1 . 장차 東獨政府의 國際的承認을 才三國을 통해서 接受할 것이고
2 . 東獨과의 國際法的으로 拘束性이 있는 條約을 체결할 것이다
동시에 西獨政府로서는

1 . UN憲章의 모델에 따라서 相互間의 暴力行事나 暴力威脅을 断念하며

2 . UN機構의 參加國으로서 兩獨이 同時加入할 것이다.

라는 點에서 合意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發展을 평해서 「루돌프.아우구슈타인」은 「슈피-겔」誌 (1970. 5. 23)에서 「이로서 우리들은 半世紀동안의 政治不在狀態를 政治로서 代替해야 한다」고 하였다. 「엘플트」會談에서 完全合意가 되고 公布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년 5월 21일에 西獨의 킷셀」(Kassel)에서 才二次會談이 속개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들에게 關心事는 「엘플트」會談에서의 東獨側의 反應인 것이다. 「브란트」의 到着節次나 기타 모든 것이 完全히 國家元首로서의 形式은 가추었으며, 「브란트」자신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東獨이라는 存在를 「認定」하는 충분한 證明이 되었다는 데 중요한 뜻이 있다. 이 事實에 대해서 社會統一黨(S E D)의 代弁人格인 「칼. 에두알트」는 그것은 「眞實의 瞬間이었다」고 평하였고 동시에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新聞도 — 이 新聞은 「키-징거」時代만 해도 西獨政府의 唯一合法性을 주장하던 新聞이었다 — 「獨逸땅위에 두개의 確固하고도 自意識으로 武裝된 正當的인 國家」를 발견했다고 하였다.

그렇지마는 20年의 分断속에서 東獨이 志向할려던 主權의 承認이 「엘플트」會談때처럼 「現實性」을 가진 것은 처음이 었지마는 동시에 그것은 冷戰前線이 變化하는데 따르는 불가피한 冒險들도 그만큼 增大하였다는 것이 東獨側의 반응이다.

그리고 東獨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1. 긴장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서 社會主義諸國들의 제각기의 利害關係가 東獨의 그것과 調整될 수 있는가

2 . 어느 程度까지 東獨이 그의 對西方接觸으로 共產陣營의 보호에서 부터 벗어날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東獨으로서는 달갑지 않는 外國의 影響力밑에 있게 되는 危險性을 가지게 될 것인가 .

3 . 東西獨接觸이 얼마만큼 東獨住民뿐만 아니라 社會統一黨의 幹部들의 思考方式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

이와 같은 危險性에 대한 東獨支配層의 對策은

1 . 東獨이 聯邦政府에 의해서 國際法的으로 承認되어야 하며 동시에 獨逸과 歐州內의 現狀維持가 (Status quo) 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리고 이와 같은 基礎위에서만 相互間 條約이 成立될수 있다 . 달하자면 西獨側에 대해서 「最大의 要求」를 提議함으로써 -- 例컨대 이 以外에도 東獨에서 西獨으로 피난간 사람들은 東獨에게 그만큼 損害를 끼쳤으니까 西獨政府는 1,000억달크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등 -- 東獨으로서는 協商에서 有利한 立場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 . (여기서는 東獨의 經濟實態가 과연 西獨에 대해서 1,000억달크의 배상요구 하는것이 現實的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問題는 論外로 한다)

2 . 東獨住民들의 意識은 어떠한가 ?

例컨대 「엘플트」 市民들의 열광적인 「브란트」 환성은 東獨政權의 붕괴를 의미하기 보다는 正常化關係樹立政策을 내걸고 있는 西獨政府를 敵對視하는 宣傳을 하고 있는 당국에 대한 住民들의

반발의 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소리는 결코 東獨住民들의 自己否定의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現實에 定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比較로서 大學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비율만을 보더라도 人口 万명에 대해서 東獨에서는 65名인데 比較해서 西獨에서는 51名인 것이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中央青年研究所의 발표를 보면 東獨靑少年들이 世界 어느나라의 靑少年보다는 親切하고 총명하고 근면하다고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住民心理의 定着傾向은 党에 의해서 充分히 이용되고 있다. 黑白統一名單에 의한 選舉로서 指導層選沢의 餘地가 없게 마련되어 있고 文筆家들은 어디서나 「操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新聞 雜誌는 党中央委의 이데오로기政策에 합당하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司法機關에서도 약간의 빈정끼 정도의 발언은 처벌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있고, 사소한 위반사범에 대한 취급도 완화되었으며, 낡은 道德의 냄새가 나는 「브르쥬아」적 色彩를 法條項에서 빼어버렸다.

심지어는 結婚外同寢도 犯罪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있다.

党에 의한 行政·軍事·經濟·文化의 統一的支配体制의 確立은 個
個의 住民으로서 도저히 熟知할수 없는 廣大한 組織으로 構成되
는 「勞働者-農民國家」를 形成하였으며 이 組織의 힘은 1953년
의 6月暴動以後 1956년의 「헝가리」事態나 1968년봄의 「프라
그」事態때에도 東獨住民들에게는 아무런 동요도 허용하지 안했던
것이다.

長期間에 걸친 이와같은 住民生活을 이제는 거의 習慣化하였고
거기에다 東獨은 東歐諸國중에서도 「모스크바」에 대해서 發言權
이 강하며 여타 社會主義國家들의 東獨에 대한 존경은 점점 키
져간다는 것을 自意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社會心理的 背景에서
東獨側이 兩獨首相會談에도 應하게 된것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社會統一黨의 政治局은 그들대로 事態의 變化에 대해서 東獨住民
들이 가질수 있는 일종의 希望과 「幻想」에 대해서 警告를 발
하는 것을 잊지않고 있다. 「엘플트」會談 數個月前부터 政治局
에서는

1. 西方側의 幻想家들이 그들의 묘한 協商戰術로서 소聯과 東獨
을 이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리고

2. 東歐社會主義諸國에 대해서는 兩獨間의 調整이 이룩되면 그
들의 「본」政府와의 接觸도 용이해질 것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
라는 것을 알리고

3. 東獨住民들이나 黨員들에게 黨의 指導部에 變化가 있을 것
이고 그렇게 되면 필경 소聯의 壓力때문에 國際法的承認도 斷念

해야 하지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갖지않도록 지도하고

4. 一般住民들에 대해서는 兩獨首相會談이 國家問題解決에 도움이 된다는 幻想을 갖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세운 것이다. 全体的으로 개관해서 하나의 뚜렷한 傾向은 社會統一黨의 煽動宣傳員 들은 눈에 불을 켜듯 하면서 首相會談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諸 關係의 調整」에서 滿意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民族的 妥協」이어야 한다고 보다는, 오히려 反對로 20餘年間 分斷狀態에 있으면서도 全體國民意識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것들은 이제 最終적으로 清算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極히 注目해야할 문제이다. 50年代만해도 그당시 黨首席이데오로-기었던 「프레드·엘스너-」 (Fred Oelssner)는 獨逸統一國家라는 觀點에서 確定的한 체계를 볼것 같으면, 첫째로 兩獨間에 있어서 分割에도 不拘하고 言語共同體 라는 點에는 變化가 없다. 둘째로는 強制的인 境界線設定에도 불구하고 獨逸民族을 歐洲中心部에서 確定的한 地域內에서 살고 있으며, 셋째로 東西를 莫論하고 獨逸사람들은 모든 優秀性과 좋은 特徵을 가지고 있고, 넷째로 獨逸民族은 하나의 單一體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現 東獨憲法은 1968년에 制定된 것이며 第1條에 「독일 민주공화국은 독일국민의 社會주의국가다」라고 되어있으나 黨으로서는 벌써 그것을 개정할 必要를 느끼고 있다. 1970年 年初에 「올브리히트」는 東西獨間의 民族的共通性은 없어졌다고 宣言한바가 있다. 그는 말하기를 「독일 민주공화국은 하나의 社會주의적 독일 국민국가이며, 서독의 聯邦共和國은 하나의 資本主義的 NATO 國家다.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民族的單一性이 없다」라고 했다. 이와같이 해서

東獨의 모든 弘報手段을 매일 매일 西獨政府의 「內獨關係」 「特殊한 關係調整」에 대한 希望에 대해서 總攻撃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당시 副黨首였던 「에리히·호네카-」 (Erich Honecker, 현 수상)은 「본」政府의 東方政策을 「反革命的」이라고 규정하였고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는 社民黨을 「오래전부터 帝國主義體制의 한 部分이된」指導部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어서 강조하기를 「우리側으로서는 이와같은 國家에 대해서 어떠한 點에서도 양보할 餘의는 없다」고 하였다.

「엘플트」會談 2週日前부터 社會統一黨의 煽動部는 全體 라디오, TV, 新聞을 통해서 東獨住民의 과거에 대한 記憶과 將來 西獨사람과의 共同性에 대한 希望을 복돋울수 있는 「모-든것을 셋어없애는」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다. 그후부터는 모든 弘報手段에서는 「두개의 國家」라는 表現이 나타나기 始作했고 「社會主義的 全獨國家」概念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言論攻勢는 오히려 東獨의 政治的中堅層에게 동요를 주게 됐다. 東方研究家들의 一致된 見解로서는 東獨내에서 成長하고 教育받은 青年幹部層에서는 內獨關係의 調整에 希望을 걸고 있고 東獨共產主義者와 西獨社民黨과의 우의적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教授, 黨, 言論人할것없이 심지어는 官僚중에서도 個人的으로는 社民黨을 상대할만한 對談相對者로 생각한다는 意見을 表明하고 있다. 黨에서는 젊은層幹部들의 過剩忠誠이나 會議의 兩面에 대해서 神經을 쓰고 있다. 「엘플트」會談以後 더욱 뚜렷해진 현상은 모든 集會에

서 東獨의 政策目的을 淸명하게 되었다는 일이다. 다시말하자면 主權承認條約으로 獨逸의 分割은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서 東獨으로서 는 아무런 代價를 支払함이 없이 內的安定과 國際的 同業權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 「캇셀」會談

1970年 5月 21日에 있었던 「캇셀」兩獨首相會議는 若干의 不祥事를 수반하였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自由의 나라 西獨의 땅인 「캇셀」에서 左派右派의 衝突事件이 나고 東獨國旗가 찢어졌고 「슈토프」 東獨首相이 「팻시즘」 犠牲者塔에서 봉헌한 花환이 破壞되는 事件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도 會談場所인 「슈로스·호텔」에 兩獨의 國旗가 제양되었던것이 원인이였기 때문이다.

이 會談에서도 兩獨間에 두개의 條件에서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만 았다.

1. 東獨은 西獨에 대해서 國際法的承認을 요구했으며, 오로지 이 條件위에서만 餘他的 內獨關係가 論議될수 있다고 주장했고

2. 西獨은 우선 內獨關係의 改善을 하고 그 기초위에서 東獨의 國際法的承認問題가 論議될 수 있다고 한것이다.

이러한 事態에 대해서 「라이니웨·포스트」紙는 「실질적으로 결렬되었다」고 하였지만 그날밤 西獨代辯人은 共同聲明에서 「會談은 결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西獨側代辯者 「아-라-」(Ahler)의 說明에 따르면,

1. 兩獨首相間에는 內獨問題의 基本点에서 合意에 到達한 것은

아니지 마는 雙方이 決裂을 피하고 있으며

2. 次期會談의 時期 및 場所를 確定하지는 안했지만은 今年內 (1970年)에 次期會談에 關係해서 連絡할 것을 定했으며

3. 變方接觸을 위한 常設機構設置를 서로 約束하지는 안했으나 종래부터 有어온 關係部處水準의 「事務接觸」(經濟, 交通 및 通信)을 繼續할 것에 對해서는 合意를 達했다는 것이다.

캄셀會談後의 事態는 이른바 「생각할 時間」으로서 評價될 수 있는 問題이지마는, 一次 및 二次會談사이에 西獨政府로서도 難問題를 안고 있었다. 우선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實際에 有어서는 그 作用範圍가 넓지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國內的인 壓力도 있고 國際的인 妨害勢力도 있고, 그 위에다 몇가지의 行動制約原則 들 때문에 東方政策을 一貫해서 추진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브란트」政權이 樹立되자 政府聲明에서 「독일내에 有어서의 두개의 국가」를 인정했고 「나는 더이상 統一에 關係해서 말하지 안겠다」라고도 했고 議會에 對한 報告에서도 「兩獨國家의 政治, 社會體制 는 서로 融合될수 없는 것이다」라고도 했던 것이다.

여기에 對해서 東獨의 「발터·울브리히트」는 1969年末에 兩獨 條約草案을 發表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骨子는

1. 國際法上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原則과 規定에 입각한 兩獨間의 條約을 맺고

2. 兩獨間은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伯林」과 「본」을 首都로 서 認定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發表된 「브란트」의 政府聲明과는 거리가 有

는 것이며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는 그것을 「帝國主義的 음모」라고 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며, 「울브리히트」도 「오로지 國際法的承認」만이 問題解決의 길이라고 機會있을 때마다 떠들고 있다.

西獨側으로서 1955年에 체결된 聯合國의 獨逸條約 - 全獨問題와 伯林의 問題에 대한 責任規定 - 때문에 難點이 많은 것이다. 거기다 野黨인 基民黨이 東方政策을 「모험과 奈落에로의 行進」(요세프·슈트라우스)이라고 평하고 브란트政權은 「가장 빠른 時期안에 亡하는것」이 國家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까지 惡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캇셀」會談에 대한 東獨側의 反應을 綜合해 보기로 한다.

우선 東獨側으로서 「캇셀」會談때 東獨國旗가 찢어지고 「슈토프」의 헌화가 부서진대 대해서 東伯林에 있는 「노이에스·도이취란트」는 「그러한 것은 「본」政府가……세계에 대해서 自己의 真相을 나타내는 人相畫다」하였고 「伯林新聞」(東伯林)에서 「알놀드」(Karl-Heinz Arnold)와 「쾨펠더-」(Gerolf Schönfelder)는 이 事件을 「本側의 불명예」라고 규정하면서 「네오나치즘의 傳染」이며 「국기모욕이나 狂的테모隊들을 本體制의 教育의 產物이다」라고 했다. 「自由獨逸青年」(FDJ)의 기관지 「青年世界」(Junge Welt)도 이 사건을 「어마어마한 네오·나치즘의 虐殺狂」으로 評價했는가 하면 東獨勞動組合 산하의 「리-자」강철제철소 勞組는 「우리들은 모욕을 느낀다」고 성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步調를 같이해서 「슈토프」도 「캇셀」會談에서 돌아와서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를 통해서 그것을 「보복과 네오나치즘이 滿開하고 있다」고 하면서 外務長官「빈짜-」(Otto Winzer)를 통해서 「民主共和國의 首相이 西獨에서 聯邦首相에 의해서 公式적으로 영접을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강조하면서 독일에서는 「두개의 獨立된 同等權을 가진 國家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캣셀」會談의 基本意義를 재천명하였던 것이다.

國際情勢面에서는 東獨政府로서는 「캣셀」會談以後의 「생각할 時間」 동안에 國家承認問題를 友邦國(소聯)의 도움으로 좀더 有利한 立場에 서고자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근거로서는 「본」政府가 소聯과의 不可侵協定을 맺을려고 協商하는 과정에서 獨逸問題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미 1970年年初에 「울브리히트」는 이러한 希望을 表示한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聯이 「본」政府에 대해서 東獨의 境界線의 保障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東伯林에 대한 外交政策上的 自由裁量權도 協商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步調를 맞추어서 「슈토프」는 東獨의 國際法的承認과 西獨과 同等한 資格으로 UN加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現在

「캣셀」會談以後의 「생각할 時間」은 充分하지 못하였다고는 하지마는 그後の 事態는 「울브리히트」가 「모- 든 難關에도 不均하고 여전히 樂觀的」이다라고 한바처럼 뚜렷한 後退대신에 서서한 進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里程碑가 될수 있는 것은

1972年 11月 6日에 東西獨政府代表(聯邦共和國側에서는 「바-르」(Bahr)이 民主共和國側에서는 「코-르」(Kohl)이 代表로 나왔다)가 會晤하여 서로가 兩獨間의 基本條約의 마지막條項까지 說明도 하기전에 서로의 意見이 衝突하고 態度의 矛盾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兩獨間의 基本條件問題로 國家代表가 한자리에 앉은것만해도 具體的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會談에서의 問題의 焦點은 兩獨關係를 規定하는데 있어서 그 것을 相隣關係(Nebeninander)로 할것인가 또는 「同存關係」(Miteinander)로 할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이자리에서 「바-르」는 「우리들은 이미 相隣關係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기초위에서 同存關係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데 대해서 「쿨-」은 「相隣關係樹立을 努力한다는 것만도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制動을 걸었다고 한다.

사실상 25년간의 對立과 斷絶이 지난 오늘날 「브란트」가 말하는 바와 같은 「相隣關係의 規定」을 條約을 통해서 정한다는 것은 東獨側에게도 難問題가 있지만은 東獨側에게는 더한 困難을 안겨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東獨의 支配層사람들은 基本條約이 調印되고 비준되기도 전에 디렘마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西獨에 의한 承認을 追求해온 東獨은 이제 「엘플트」會談以來로 東獨內에서 「브란트」의 人氣가 上昇一路에 있다는 事實이 否定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西獨側에 의한 東獨의 承認은 東獨이 國際舞台登場, UN 機構에의 加入이라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지만은 그것을 同時에 國內 政治面에서는 西方側과는 接近하지 말

라는 党方針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國內統制에 대해서도 상당한 危險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條約에 의해서 東獨側의 意圖대로 獨逸의 分割이 確定된다고는 하지마는 사실은 이 分割의 承認을 契機로 해서 兩獨間은 過去 어느때 보다도 接近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逆說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根拠로서는 東伯林에 있는 國立輿論調查研究所의 調査에 따르면(勿論 이 資料는 東獨政府가 極秘에 부치고 있다) 1972年 初夏現在로 被質問者의 80%程度가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에 대해서 同感的이고 兩獨間의 嚴格한 分割을 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事實은 社会統一党的 政策과는 正面으로 對立되는 일이기 때문에 党으로서는 지극히 當황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輿論調查結果에 자극되어 党으로서는 서둘러 條約의 結果가 자아낼수 있는 願치않는 일들 - 이데오로기 - 面에서든 國內政治的 面에서든 간에 -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多角的인 對策을 條約協商段階에서 樹立할 努力을 集中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党指導部에서 가장 重點을 두고 있는 點은 東獨住民들이 外部의 이데오로기 - 的 感染을 방지하는 問題다. 왜냐하면 「엘플트」會談以後 東獨共産黨員들이라 할지라도 社会民主主義를 그렇게 괴물취급을 하지않게 되었고, 資本主義라는 것은 반드시 「레닌」式으로 革命을 통해서 止揚하는 것이 아니고 修正을 통해서 人間에 알맞게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라는 관념들이 나타나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党으로서는 이와같은 傾向은 勿論 致命的인 것으로 看做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이와같은 傾向에 대한 캠페인이 展開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例컨대 社会統一党政治委員인 「파울·벨너-」(Paul Verner)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켜 「맑스를 죽이는자」(Marx-Tgter)라고 하기도 했고 党機關紙 「노이에스·도이취란트」는 이것은 「民主社会主義라는 口호를……社会主義國家속으로 만연시킬려는」음모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다. 党首 「호넵카-」(Erich Honecker)는 오래전에 이미 青年指導黨員들 앞에서 「西獨의 社会民主主義의 指導者들은 그들의 3年間の 執權동안에 独占資本主義를 強化하는 政策을 써왔다」고 했던 것이다.

兩獨關係條約의 調印이 있었던 바로 그날에 党이테오로기인 「파프」(Werner Paff)가 「노이에스·도이취란트」紙에서 五段에 걸쳐서 「社会民主主義라는 것은 資本主義的 搾取秩序를 加害적으로 民主化하는 하나의 概念에 不適當한 것이다」라고 主張했고 2日後에는 東獨의 이테오로기-担当教授인 「헤-버-」(Herbert Häber)의 이야기를 党首인 호넵카-가 引用하면서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理論을 불조아 이테오로기-와는 区分되는 것이며 자가에는 불조아 이테오로기-의 社会民主主義的 變種도 包含되는 것이다. 兩黨의 差異란 물과 불과 같은 것이다」라고도 했다.

條約假調印이 있었던 다음날인 1972年 11月6日 東獨의 社会統一黨 党政治局은 西獨側에서 부터의 影響에 對항하기 위한 모든 大量媒介의 活動指針을 示達했다. 여기에 따를것 같으면 「煽動과 宣傳은 反共主義 즉 帝國主義的 불조아의 政治·이테오로기-의 主된 手段, 「불조아」적 民族主義, 社会民主主義, 修正主義, 社會主義 등을

우리들의 優越한 精神的武裝으로 배격하는데 그 課題가 있다」고 하고 있다.

「본」에서의 基本條約의 假調印은 東獨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각종의 反共主義에 대한 四方防禦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日刊新聞은 勿論 심지어는 「노이에스·도이취란트」까지, 그리고 라디오, TV는 党中央委員會에서 이와같은 歷史的事件에 대한 報道에 있어서 「独自の인」立場에 설것이 아니라 指示에 따르라는 方針이 下達되었다. 말하자면 모든것은 政治局에 의해서 許可된 國立通信社(ADN)에서의 統一된 解說단이 發表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 解說에 따르면 이 假調印으로 말미암아 「聯邦共和國이 오랫동안 追求해온 單一代表權의 要求에는 여러形態에서 終止符가 찍힌 것이다」라고 하고 「兩獨間의 (社會)體制의 對立은 바로 우리들의 歷史的段階에 있어서의 內容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條約도 이것을 變更할 수는 없는 것이다」 結論을 맺고 있다.

黨機關紙의 編輯方針에서도 注意깊게 讀者의 民族感情을 복돋우는 일이라든지, 西獨側에 대한 東獨側의 양보條項에 대한 說明이 될수 있는 內容의 것들을 全적으로 削除되고 있는 것이다. 그代身 紙面은 「스칸디나비아」諸國들의 承認用意報道, 仏蘭西의 關心表明, 「파키스탄」의 承認記事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東獨住民들은 伯林(西)協定과 規定이 條約의 性格에 까지 擴大되었다는 事實을 兩獨政府代表들의 聲明을 통해서 間接적으로 알게 될뿐이다. 兩獨이 「거의 같은 時期에 UN加入申請을 할것이라는 覺書內容이나 兩獨間의 家族便紙나 旅行이 쉽게 되었다

는 일에 대해서는 別로 알려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新聞에서 보면 兩獨境界線에는 네개의 通路가 設置되었다는 것이 報道되기는 하나 그것도 「觀光을 包含한 越境旅行 및 訪問旅行交通의 改善을 위한 措置」가 취해지고 있다고만 하고 「離散家族問題에서 發生하는」 「여러 問題들이 解決」된 後 이러한 措置가 取해질 것이다 라는 式으로 얼버무려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락戰術에도 不拘하고 東獨住民들은 重要한 內容들을 西獨의 TV 및 라디오에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西獨間의 「夫婦의 再結合」이 쉽게 되었다든지 「將來에 있어서의 結婚」도 許容될수 있을 것이라는 事實들은 그리 알려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참고로 東獨政府가 東獨住民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人間的 苦痛의 解消」에 관한 몇가지의 일들을 列挙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1. 銀婚式 또는 金婚式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緊急家族事項"으로 登錄되며 그들은 西獨訪問이 許容될 것이다.

2. 異父母의 형제자매도 장애에 있어서는 西方訪問을 申請할 수 있다.

3. 西方訪問이 許容되지 않았던 東獨住民들은 西獨에서 부터의 친족, 친지의 訪問을 西獨境界地域에서 받을수가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서 56個의 西獨側의 境界地帶의 區域과 54個의 東獨境界地帶의 區域을 정해서 이 안에서의 東西雙方間의 小規模往來가 可能하게 되어있다.

4. 東独地域에서 부터의 필름, 사진판, 透明陽畫, 写真紙 및 음반의 搬出禁止가 止揚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重要한 것은, 東独住民들에게는 별로 興味없는 일이지마는 新聞人을 위한 몇가지의 條約規定이 있다는 事實이다. 말하자면 東独의 新聞에서도 西独政府가 이 條約으로 將來에는 保健問題, 스포츠, 環境汚染問題에 있어서 協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聯邦共和國에 대해서 生活費要求를 할수 있는 사람이나 或은 西独의 金融機關에 대해서 債權을 가지고 있는 많은 東独住民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非營利的인 支払 및 決濟疎通」의 規定을 만들 努力을 할것이라는 意見開陳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마는 「슈피-겔」誌(1972.15号)에 의하면 聯邦銀行은 約 1億달크가 되는 資金凍結을 解除해서 元所有者에 對한 支給準備은 아직 미비하다고 報道한 일이 있다. 여기서 非政治的인 東西交流問題는 時間을 두고서 調整할 餘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東西独緊張緩化는 우선 政治的次元의 問題로 머물고 있는 것이 實情이며, 그러면 그럴수록 東独政府로서는 基本條約成立의 結果로서 發生할 수 있는 問題 즉 兩独間의 우의의 강화, 全独의 社会民主主義化에 反對하는 캠페인을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大組織的인 次元에서 別리고 있는 것이다.

例컨데 모든 情報担当官들, 人民軍兵士들, 國家安全機關의 機關員, 警察들은 西方側과의 모든 交通이나 個人接觸에 관련하지 않을 義

務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義務는 이제 거의 모든 國家機關에 從事하는 사람에게도 擴大되고 있다. 그 次元은 各省의 官僚에서 村長 심지어는 양계장관리인 기타 다소 責任的地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西方에서 부터의 사람을 초대할 수도 없고 초대받을 수도 없고 西方과의 通信을 抑制하고 西獨이나 西伯林과의 電話도 斷念해야 하는 것이다. 꼭 그런것이 必要할 때에는 分명한 許可밑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過剩忠誠分子들은 自己집電話를 他人이 西쪽과 通話하는 것을 許諾해서는 안된다고 說得하고 있다. 그것을 違反할 때는 疑心을 받는 것은 勿論이다. 여기에 대해서 政治局에서도 斷案을 내리고 警告하고 있는 것이다. 卽 「相克하는 世界觀과 生活樣式을 가지는 사람들의 大量接觸運動이 展開되고 있는 이마당에서는 高度의 警戒성과 最大의 積極性이 要求되고 있다」

高度의 警戒성과 最大의 積極性은 東獨의 成人들에게만 要求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까지 要求되고 있다. 東獨의 少年前衛隊隊長은 많은 隊員들이 아직도 西獨의 帝國主義의 本質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열정적으로 증오할줄을 모른다고 통탄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말속에 자주 「社會民主主義的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

東西獨關係 正常化에 대해서 統一社會黨員들의 正統적인 非難 즉 애초부터 「本」政府와의 協商을 하지 않았더라면 東伯林的 統一社會黨員들(共産黨員들)은 이와같은, 이데오로기-의 危機와 社會民主

主義感染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党頂上부의 立場을 모르는 말이다. 바로 非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 이 問題에 있어서 党指導部는 自主性を 發揮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一方에서는 소聯의 歐羅巴에서의 緊張緩和(소聯의 對中共軍事力集中때문에) 政策에 逆行할 수도 없고, 他方에서는 社会民主主義的인 「본」의 새로운 東方政策을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다. 東獨政府로서는 東方陣營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면 協商을 해야 하며, 同時에 國家의 承認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機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西獨의 用意를 모른체할 수도 없는 것이다. 東獨이 그들의 당초의 要求였던 協商前의 「본」政府에 의한 國際法的 承認問題는 소련의 圧力으로 양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承認을 위한 餘他的 國內의不安은 不可避한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國內의 統制를 強化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參考資料

여기에 參考로 세 가지 資料를 提示한다.

1. 東獨政府가 모든 公務員들에게 示達한 秘密維持를 위한 準則規定에 따라 提出해야하는 「誓約書」의 內容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나는 獨逸民主共和國(東獨)과 그 友邦의 政治的 및 經濟的 利益과 保衛를 위해서 職業活動이나 社會活動 기타 어떠한 形態에 있어서나 그 活動過程에서 認知하게된 事實, 對象과 情報 및 探知에서 얻어진 일들을 秘密로 간직할 일들을 關係없는 人士들에게 누설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洩表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다해서 秘密을 維持할 것을 義務로 생각한다.

나는 내가 독일민주공화국의 秘密을 所管하고 있다는 것을 銘心하며, 그것은 또한 나에게 주어진 커다란 信任임을 自覺하고 있다. 社會主義社會와 社會主義國家는 나에게 높은 믿음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나도 매일같이 이에 대한 責任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信任은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忠誠과 正直性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他的 모범적인 態度로서 나는 독일민주공화국과 友邦들을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強化하는데 貢獻할 것이며 社會主義의 財產을 保衛하고 增大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나는 秘密所管者는 勿論 그의 家族들도 非社會主義諸國이나 西伯林의 市民들과의 業務上이나 非業務上의 交際 및 交通, 電話, 電

報에 있어서는 申告와 報告의 義務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와같은 義務를 지키지 않을때의 제재나 処罰이 있을것이라는
점은 나로서는 잘 알고 있는 일이다.등등

2. 社会統一党 党学校校長 「발레」(Heinz Barche)가
「自由의 땅」(Freie Erde)紙에서(1972.12.1)基本條約締結後
「만약에 社会民主党指導者가 「독일민족의 單一性」에 關係 質問
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그와같은 語彙를 단연코 排摺하는 것이다.
社会民主党指導者들의 「民族의 單一性」과 같은 말투는 偽善에
不適當한 것이다. 아마 이말은 독일민주공화국이 社会主义國家共同
체으로 統合되는 過程을 制動하고 不利한 立場을 만회하는데 도
움이 되는 手段으로 利用될 수도 있을것이다.

聯邦共和國과의 條約이나 또 기타의 文書에는 「民族의 單一性」
「독일의 統一」 또는 「全體로서의 독일」과 같은 말은 없는
것이다.

「民族問題」에 대해서 歷史는 이미 判定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高張은 독일민주공화국이며 그속에서 成長한 社会主义國
家인 것이다. 우리들의 心장과 感情과 뜨거운 同體感은 社会主
義諸國 및 소련各共和國의 벗들과 同志들속에 있는 것이다.
世界第二次大戰以後의 事態發展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事實그대로
帝國主義的 聯邦共和國內에서는 「블조아」國家가 維持되고 있으며
우리들로서는 이와같은 帝國主義的體制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聯邦共和國에서부터의 결별 정책없이 이제 完成段階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의 世界各處에서부터의 承認의 過程과 聯邦共和國과의 條約에 到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도 事實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條約自体는 聯邦共和國과의 境界確定을 의미하는 것이며 聯邦共和國과의 接近이라는 단순한 환상적인 傾向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또 「독일의 再統一」과도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약에 동독시민이 서독시민과 친척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平和的이고 進歩的이고 民主的이며 革命的인 독일민주공화국의 품속에 합치게 해주는것이 우리들의 課業인 것이다.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國際主義는—소련의 50年間の 發展에서 배우는 바로서는—일반적이며 拘束力이 없는 理論이 일어나며 대단히 實際的이며 우리모두에게 該當되는 世界觀의 問題인 것이다. 몇 사람의 施行往來로서 그것에 變化가 올리가 만무하며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사이의 區分에 다른점이 생긴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테-제가 社會民主主義의 指導者들에 의해서 표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몇가지 할말이 있다.

社會民主主義라는것은 불조아직, 反社會主義的 이데오로기-의 變種이라는 것에는 再論이 必要치 않다. 社會民主主義의 特色은 그것이 資本主義諸國의 勞動階級을 기만하고 社會主義國家에 까지 침투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다.

3. 兩獨間 基本條約 付屬書類

15. 報道關係者의 城業活動의 可能性에 關한 書翰交換

코-르次官(東獨)에게 보내는 바-르次官(兩獨)의 書翰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委任에 의하여 獨逸聯邦共和國에 있어서
獨逸民主共和國에 있어서 獨逸民主共和國報道關係者의 職業活動의
可能性에 關하여 以下를 通報하는 榮光을 貰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現行法秩序의 範圍內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의 報道
關係者 및 그의 補助要員에 대하여 職業上의 活動과 自由로운 取
材·報道를 行하는 權利를 부여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은 職業이 合法的으로 遂行되는 경우에는 非常駐特
派員의 活動을 또한 相互主義의 留保아래서 常駐特派員이 職業行
使를 위하여 駐在할것을 可能토록 한다.

常駐特派員에게는 以下の 것이 保證된다.

- 다른 諸國의 特派員과 同等한 待遇를 받는 權利
- 職業行使를 위하여 駐在하고 있는 경우는 모든 通常의 交通
手段에 의하여 常時 出入國하는 權利
- 뉴-스는 論評 및 解說의 即時通報를 包含한 獨逸聯邦共和國
에 있어서의 職業活動 및 移動의 可能性
- 通常 一般이 使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의 利用
- 一般 및 出版關係機關이 널리 入手할 수 있는 公式의 情報
를 入手하여 이에 關하여 委任을 받은 人物 및 官庁 또는
機關으로부터 情報를 收集할 權利
- 自己의 職業遂行에 必要한 物品, 資材 或은 手段을 携帶하는
權利

獨逸聯邦共和國에 있어서의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特派員으로서의

職業活動에 관하여 以下の 것이 前提로 된다.

- 独逸聯邦共和国의 現行方式에 의한 記者登錄다음에 駐在
- 治安, 犯罪防止, 公衆衛生의 保護 및 第三者의 權利와 自由의 保護를 위하여 制定된 法律政令의 遵守

本通報에 있어서 報道關係者라 함은 常時 그리고 職業上 独逸民主共和国의 新聞, 雜誌, 라디오, 텔레비죤 或은 뉴-스映面의 記者, 寫眞家, 카메라맨 또는 技術者로서 独逸民主共和国의 日刊 或은 뉴-스映面를 위하여 論評 및 解說을 包含한 情報를 入手, 受信 或은 傳達하는데에 從事하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書翰이 코-르次官에서부터 兩独国名만 바꾸고 바-르次官에게 보내지고 있다)

16. 報道關係者の 職業活動의 可能性에 관한 書翰交換에 관한 付屬聲明

1. 独逸民主共和国

1. 独逸民主共和国은 非常駐特派員의 活動에 關하여 以下를 確認한다.

独逸聯邦共和国의 非常駐特派員은 独逸民主共和国에 있어서 모든 通常의 交通機關을 利用한 出入國, 뉴-스, 論評, 解說의 即時送付를 包含한 第3國의 非常駐特派員과 同等한 職業活動 및 移動의 可能性을 取得한다. 또한 通常一般의 使用에 提供되고있는 情報傳達手段을 利用할 수가 있다.

나아가서는 一般 및 出版關係機關이 널리 入手할 수 있는 公式의 情報를 入手하여 이에 관하여 委任을 받는 人物 및 機關부터 情報를 收集하는 權利를 갖는다.

所管機關부터 獨逸民主共和國에 있어서의 職業上の 活動에 관하여 許可를 받은 後는 自己의 職業遂行에 必要한 物品, 資材 및 手段을 携帶할 수가 있다.

2.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에 常駐하는 自國의 特派員이 「獨逸聯邦共和國外人記者클럽」의 會員으로 될것을 希望함을 表明한다.

II. 獨逸聯邦共和國의 聲明

1. 常駐特派員의 「獨逸聯邦共和國外人記者클럽」入會라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希望에 대하여 聯邦政府는 同政府가 클럽의 決定에 대하여 何等의 影響力도 行使하지 못하여 本件에 관한 決定權은 「클럽」에만 속함을 確認한다.

2. 上記 事情에도 不拘하고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常駐特派員에 대하여 다른 諸國의 特派員과 同等한 즉 「獨逸聯邦共和國外人記者클럽」會員과도 同等한 職業活動을 保障한다.

聯邦政府는 就中 特派員이 一般으로 入手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모든 情報를 上記特派員에 供與한다. 聯邦政府는 公式記者會見等에의 招待時에는 上記特派員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3. 聯邦政府는 獨逸民主共和國의 獨逸聯邦共和國常駐特派員이 記者會見에 있어서 質問權을 取得하도록 모든 努力을 行한다.

五. 評價 및 우리 의 對 策

到 书 中 的 子 集 中 的 五

五. 評價 및 우리의 對策

1972년 12월 21일 東伯林的 東獨關係會議建物에서 東西獨政府代表 間에 「兩獨關係의 基礎에 關한 條約(基本條約)」이 調印되었다. 批准을 必要로 한다고 規定되어 있는 이 條約은 兩獨의 外交關係가 規定되었고 따라서 兩獨關係에서의 言論交流의 問題도 規定을 本 셈이 된다. 「國家間」의 協定을 의미하는 이 條約으로 西獨政府의 對東獨言論政策이 本質적으로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1972年 가을의 社民黨再執權後 東方政策은 一層더 具體性을 띠고 對東獨政策의 前面에 나서고 있는 것이지만은 1973年 1月 18日 「브란트」首相의 議會에 대한 政策基調演說은 이것을 集約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우리들의 短期的인 將來에 있어서의 政策遂行의 實踐的目標은 두개의 獨逸사이의 諸關係를 緩和함으로써 民族의 團結을 保有하는데 있으며 過去에 있었던 여러가지 危機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東伯林政府 또한 調整된 協調狀態에 到達하고 더 나아가서는 協同의 方向으로 發展할 것을 願하고 있다」고 報告하고 1969年의 政策聲明이 「캄셀」會談의 12個條에서 具體적으로 規定되었다고 하였다. 이로서 적어도 戰爭狀態를 終熄시키는 努力이 具體化 되었고 따라서 兩獨間의 關係에서 發生하는 人間의 悲劇도 구제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伯林問題에 對한 四大國間의 合意는 歐州의 緊張緩和의 中心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將來에서도 독일민주공화국의 政府 및 社會

체제를 거부할 것이며 同時に 東独民主共和国이 우리나라의 諸條件을 거부해온 態度를 어떠한 方法에서라도 變更할것이라고 期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兩國政府는 基本條約에 의해서 이러한 差異點에도 不拘하고 武力行使를 斷念하고 그것을 義務로 할것을 規定했으며」 이것은 바로 「平和維持의 問題는 民族의問題보다도 오히려 優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獨逸國民이 歐羅巴人民에게 바칠 수 있는 奉仕」임을 強調하고 있다.

이 政策基調演說은 信念과 自信의 뒷받침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例로 西独의 新聞王이라고 하는 「슈프링거」-가 自己署名으로 「디·벨트」紙에 「브란트」政府의 基本條約을 非難하는 論說을 連日 揭載케하여 基民黨路線을 支持한 것은 1972年 가을 選舉의 하나의 特記할만한 일이었지만은 「基本條約을 가르켜 「祖國의 生體解剖」 「國家的境界線을 넘는 人民戰線」 「獨逸民族에 대한 背信」이라고 극구비난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브란트」가 「발첸」을 制壓하고 再執權하였다는 事實은 西独住民이 基本的으로 東方政策을 支持하였던 結果라고 評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選舉過程에서 「슈프링거」-系 新聞從事員들이 「브란트」를 支持하고 나서는 일도 있었고 하여 이 選舉에서 「할슈타인」原則은 決定的으로 過去之事로 되고 만것이다.

여기서 聯邦共和國의 對東獨言論政策의 評價를 몇가지 點으로 줄여서 列挙한다면

1. 聯邦政府의 政府組織에서 新聞公報處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輿論操縱을 위한 政府機構가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政府

와 言論機關과의 中繼役割에 고치고 있고 政府와 言論機關사이에서 相互에 대한 P.R機關이 되고 있을 뿐이다.

對東獨問題에 대한 言論論調에 대해서도 政府로서 露骨的으로 操縱하려고 나선일도 없으며, 그야말로 民主的인 輿論이 暢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紙같은 保守紙는 統獨問題에 관한限 스스로 自制하여 保守路線을 堅持하여왔다는 것이 하나의 좋은 例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政府가 對東獨言論政策에 대해서 얼마만큼 言論의 自律性을 保障하고 있는가 하는 또하나의 例로서 基本條約締結에 즈음해서 發表된 「報道關係者の 職業活動의 可能性에 관한 書翰交換에 관한 付屬聲明」에서 東獨에 常駐하는 特派員이 東獨政府의 希望에 따라 西獨記者가 「獨逸聯邦共和國外人記者클럽」에 入會하는 것에 대해서 同클럽이 決定한일이며 政府로서는 何等의 影響力을 行使하지 않겠다고 聲明하고 있는데에도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一連의 政府態度는 民間水準에서의 輿論을 絶對로 尊重한다는 民主政府의 本來의 態度의 表明일것이다.

2. 그럼에도 不拘하고 言論機關의 独占化를 통한 大衆輿論의 操縱可能性 - 특히 對東獨問題와 關聯해서 - 은 政府로서 受諾할 수 없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政府機關인 「칼델」庁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新聞委員會의 機能이 그것이다. 그것은 經濟에서의 独占許容에 限界가 있는바와 같이 大機構의 操縱에 의한 輿論 独占도 非民主的이라는 觀念에서 由来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民主政府가 自己의 義務로 삼아야 하는 原則的인 일에

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聯邦政府의 東方政策은 —— 좁은 의미에서는 對東獨政策 —— 基本的으로는 緊張緩和政策이며, 따라서 第1次的인 言論 및 表現은 兩獨國家의 存在를 確認하고 併存에서 共存에로의 길을 갈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問題는 民心은 이미 이러한 方向에 對해서 圧倒的으로 肯定的인 것은 지난번 選舉에서 確認된 事實이며 東獨側에서도 實質的으로 同一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問題의 核心이 될 수 있다.

4. 이론바 第8次 刑法改定法律의 施行으로 東獨新聞의 西獨輸入擴大努力은 西獨사람들 自身이 東獨新聞의 宣傳에 興味를 잃고 있고 또 東獨政府自体의 無誠意등으로 法律의 所期の 目的이 達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東獨政府의 聯邦政府에 對한 劣等感의 所致라고 할 수 있다.

問題는 모든것이 西獨의 緊張緩和는 東獨側의 劣等感때문에 많은 歪曲現象이 일어나고 있는바 그것은 結局 東獨自体가 西獨에 對한 緊張的 自己孤立化를 招來하고 있고 그것을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와 의 不可避한 갈등으로 說明하려는 自己 合理化로 弁明하고 있다.

基本條約을 緊張緩和와 統一에의 基礎로서 宣傳하기 보다는 두개의 國家의 確定, 國家法的承認, 社會主義的自体 強化, 單一民族으로서의 독일 민족이 過去에 갖었던 모 - 든것에서 부터의 斷絶, 西獨住民과 東獨住民과의 交信, 接觸에 對한 壓力등등 一聯의 斷絶(Abgrenzung) 運動은 東獨政府가 과거 어느때 보다는 西獨에서부터 멀어져 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弘報手段을 動員한 이와 같은 東獨政府의 勞力은 東獨住民의 80%가 「브란트」의 東方政策을 支持하고 있다는 東獨政府의 一級秘密資料는 東獨政府의 離間政策에도 不拘하고 兩獨의 民心은 基本條約調印으로 과거어느때보다도 相互接近하고 있다고 하는것이 社會心理의 實態인 것이다.

以上과 같은 意味에서 聯邦政府의 對東獨言論政策은 과거 數年을 두고 주장해왔던 브란트 의 東方政策이 国内的으로는 社會正義와 民主化에 相當할 뿐만 아니라 東獨에 對해서는 平和共存과 人間의 尊嚴性을 가르쳐주는 人道主義的哲學으로 表現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물결은 国内的으로는 對東獨論調가 政府의 言論政策에 基本的으로 同調하면서 東獨住民들에 對해서는 무엇보다도 人間存在樣式에 對한 새로운 示曉를 던져주고 있는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國家라든지 이데오로기-보다는 더 根本的인 것 다시 말해서 汎歐羅巴的인 것을 感知하기 때문에 東獨住民들이 그들의 心底에서 그러한 反應을 일으키게 된것으로 보여진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聯邦政府의 對東獨 言論政策은 東方政策의 形而上學的役割을 遂行하면서 成功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技巧와 術策의 內容이 아니고 人間의 良心에 接近하는 西歐價值觀이 基底에서 일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相當한 持續性과 影響力을 갖일 것으로 보인다.

聯邦政府의 對東獨言論政策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와야 하는가? 勿論 單純한 模倣이란 있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皮차간에 社會發達의 段階差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독일사람들이 가지는 西歐的 價值觀이 生活化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2次大戰 終結에 따르는 國土兩斷이라는 政治的, 軍事的事情만이 유별나게 共通點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統一」이라는 말이 독일에서나 여기에서나 獨極的인 政治目標로 登場되고 있는것을 否定할 수가 없다. 兩獨間에는 이미 基本條約이 調印되고 있으나 우리는 現在 調節委의 機能이 始作할려고 하는 段階에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의 要因을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對策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진다.

1. 現段階로서 法律改正을 통해서 까지 할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는 別問題치드래도 北韓의 新聞雜誌의 配布가 現在의 限定되어 있는 狀態를 벗어나서 적어도 一定한 人口層(例컨대 大學敎職者, 二級以上の 公務員, 言論人等)에게는 許容될 것에 대한 行政的 措施가 바람직 하다.

2. 西獨의 第8次 法改正法律에서 보는바와 같은 北韓內의 出版物輸入經路를 公式化할 必要가 있다.

3. 學界 및 言論界에서 各己 自任에 의한 代表 및 研究委員들로 構成된 「統一論調研究委員會」(假稱) 같은 것을 마련하고 政府는 이 委員會의 決定을 尊重하는 態度를 取하는 것이 統一論을 民主化시키는 第一段階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4. 平和統一의 心情을 國民心理속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 出版物과 弘報手段으로 하여금 단계적, 주기적으로 北韓事情의 報道와 論評을 하게 하는 政府施策이 要望된다.

5. 가장 根本的인 問題로서 우리들의 平和哲學을 樹立할 必要가 切實히 要求된다. 말하자면 독일에서는 東方政策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北方政策을 갖어야 하는 것인데 그 政策의 一貫性和 妥當性을 얻기 위해서는 哲學부터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時間이 緊迫하다고 해서 이 問題를 疎忽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参 考 资 料

本 加 計 書

参 考 資 料

1. Gerd Labrousse, 25 Jahre geteiltes Deutschland,
Ein Dokumentarischer Überblick, Colloquium Verlag,
Berlin 1971
2. 分断国外 問題, 金哲洙, 金芝雪, 三星文庫 20. 1972
3. Eleanor Lansing Dulles, One Germany or Two, (日訳) 1970
4. Facts About Germany, 1964
5. Karl Jaspers, Wohin treibt die Bundesrepublik ?
(日訳) 1969
6. 新問題を追う 年鑑 '71. 自由国民社
7. Arnold J. Heidenheimer, The Governments of Germany,
University Paperbacks, Methuen : London, 1961
8. 総合ジャメリズム研究 1967.7.8.9.10.11.12 月号
9. Willy Brandt, Reden und Interviews, 1968-1969,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0. Willy Brandt, the ORDEAL of Coexis- Tence, Harvard
Uni. Press, 1963
11. The Bulletin,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o. 31
Vol. 21. 1. 23 1973
12. 総合ジャメリズム研究 No. 45 (夏季号)
13.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Band I ~ 8,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4.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Band I - 3.

Zusammengestellt von Dr. Heinrich von Sieglar, Bonn -
Wien - Zürich

15.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Annexhand : Wortlaut
der Verträge, Zusammengestellt von Dr. Heinrich von
Sieglar, Bonn - Wien - Zürich

16. 統一問題研究 (第二輯附錄) 資料 外務部, 外交研究院

17. 東独政策에 관한 시정보고
(1971년 西独聯邦政府)

내독관계성, 1972.2.

국토통일원

18. 海外評論通信, 東京

1972. 3.13

1971. 7.26

1972. 3.14

1972. 7.12

1972. 8.28

1972.10. 9

19. Der Spiegel

1970. 3.23

1970. 5.25

1972.11.21

1972.12.18

1972.12. 4

20. 新聞研究, 1965. 7 - 12.

日本新聞協會

21. 통일, 1월호, 1973. 統一社 東京